
CEMENT

www.cement.or.kr

2019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멘트 산업부문 16년 연속 1위

100년이 지나도 함께



50년만에 보내는 러브레터



당신께 첫 편지를 띄웁니다.
 저의 이름을, 저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늘 저는 당신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집에 있을 때나,
 거리에 있을 때,
 당신이 힘들어 기대고 싶을 때나
 앉고 싶고, 때로는 눕고 싶을 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을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직 당신만 바라보았듯

100년이 지나도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일시멘트'입니다.



인트로

02 Issue

시멘트산업의 석탄재 사용과 자원순환사회 구현

04 KCA News

협회 주요 행사 스케치

07 Cover Story ①

일본산 수입 석탄재 관련 Q&A

12 Cover Story ②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산업 & 정보

16 Industrial Report ①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6 Industrial Report ②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30 Global Report

해의 주요 국가별 시멘트산업 동향

36 Focus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사회 & 문화

44 Trend

글로벌 전의 전쟁 점입가경, 해의 인프라 시장서 찾는 미래

48 Zoom in

시멘트家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58 Life & Health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꿀팁 다섯 가지

뉴스 & 정보

61 Membership News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소식/회원사 인사동정

73 Statistics

시멘트산업 관련 통계

계간 「CEMENT」 통권 제223호 한국시멘트협회

발행인 겸 편집인 이원준 발행처 한국시멘트협회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역삼동 837-26 삼일플라자 16층) 전화 02-538-8230 팩스 02-538-1720 문의 홍보관리파트(02-538-8237) 인터넷 www.cement.or.kr 디자인 (주)매경바이러스가이드(02-558-4913) 발행일 2019년 11월 29일



시멘트산업의 석탄재 사용과 자원순환사회 구현

한국시멘트협회 홍보관리파트



지난 여름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는 원료인 일본 석탄재의 수입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서자 격앙된 국내 여론은 일본과 관련한 제품 불매, 관광취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데 주목한 일부에서 '일본산 석탄재는 방사능 우려가 있다', '돈벌이에 집착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한다'며 청와대에 수입 금지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언론,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유/무연탄)을 연소한 후에 남는 재(Ash)를 말합니다. 발생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비산재(Fly Ash)와 바닥재(Bottom Ash)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발전소는 모두 연료인 유연탄을 호주, 러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주요 원료는 석회석(89%) 외에 점토질(7%), 철질(2%), 규석질(2%)이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자연환경 보전과 더 이상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인허가가 강화되면서 신규 점토광산의 개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리 석회석이 많아도 점토질 원료가 없으면 시멘트생산이 불가능한 데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석탄재가 점토를 대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때부터 시멘트업계는 점토성분과 유사한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점토 대체원료로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품질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양국(兩國) 모두 해외에서 유연탄을 수입해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가 석탄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본산 석탄재가 일본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유연탄을 사용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전사고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방사능 검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 선박을 이용해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에 곧바로 투입된 후 다시 선박에 실린 석탄재가 애초에 방사능과 연관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미 지난 8월, 환경부에서 통관절차 강화를 통해 방사선 전수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당연히 방사선과 방사능 모두 기준치를 넘는 결과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우리는 단순히 폐기물로 인식하고 있는 석탄재가 국내 시멘트업계를 비롯한 전세계 시멘트업계에서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동시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멘트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순환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멘트산업의 역할을 ‘쓰레기시멘트’로 매도하는 ‘공포 마케팅’이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환경정책 방향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시킬 계획입니다.

UN산업개발기구 전문위원 다니엘 박사는 “유럽에서는 대략 80년대부터 시멘트 산업 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유럽의 거의 모든 시멘트 공장에서 대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45%에 달한다. 즉 유럽의 모든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45%가 대체 연료”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내는 2017년 기준 약 20% 수준으로 유럽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유럽, 일본은 이렇게 시멘트산업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원료 및 연료로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는데 정작 국내 상황은 정반대로 시멘트를 매도하고 순환자원 재활용을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명(黎明) 전 새벽은 하루 중 칙흑같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멘트산업에 대한 인식이 비록 칙흑처럼 어두운 새벽일지라도 여명은 멀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회원사와 협력 하에 독자 여러분이 시멘트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주요 수단임을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잘못 알려진 선입견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멘트업계,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핵심 역할 수행

협회, 제12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에서 순환자원 재활용 홍보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는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Re-Tech 2019)'에 참가하여 시멘트산업에서 순환자원의 안전한 재활용과 친환경적 우수성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6년 연속 국제자원순환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자원순환센터' 홍보관을 운영, 시멘트 제조과정 및 순환자원이 어떻게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재활용되는지 관람객들에게 알렸다.

또한 순환자원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자원순환형 시멘트산업' 홍보영상 상영, 시멘트산업-지자체간 순환자원 재활용 관련 우수협력 사례를 정리한 책자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일반 관람객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멘트업계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소개하였다.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홍보관 전경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자원순환사회 구현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자원순환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시멘트산업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홍보관을 참관 중인 주요 내빈과 협회 이창기 부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삼표시멘트 문종구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네 번째)

시멘트업계, 품질 우수성 확보로 고객만족도 강화나서

협회,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 기념 현판식 거행 고객 만족도 강화 위한 시멘트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국내 시멘트업계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품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품질관리 구축에 나선다. 국내 주요 시멘트 생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는 지난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멘트 제품(KS L)의 전문적·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은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과 건설업계의 더욱 다양해진 품질 요구에 한국시멘트협회(이하 협회)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으로 협회는 KS인증심사 지원 및 단체인증사업을 통한 품질관리 전문성 확대 등이 가능해져 고객 신뢰 확대와 시멘트산업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 시멘트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와 체계적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할 품질인증센터(가칭)를 하부

조직으로 설치하여 해외 주요국 시멘트 제품과 강도 편차의 비교 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시멘트 제품의 품질안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레미콘업계의 다양한 요구에도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시멘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이번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한 협회 김의철 기술품질파트장은 "전문 인력 채용과 조직개편 단행을 통해 시멘트 제품 품질 개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증 담당인력 양성, 제품 인증사업까지 다양한 사업과 많은 역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선진국 수준의 시멘트 제품 품질관리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어 시멘트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시멘트협회는 10월 10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을 기념하여 이현준 협회장과 업계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한국시멘트협회는 10월 10일 시멘트 제품의 전문적·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 성신양회(주) 김상규 대표, 한일현대시멘트(주) 강오봉 대표,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현 쌍용양회공업(주) 대표), 아세아시멘트(주) 및 한라시멘트(주) 이훈범 대표, (주)유니온 강병호 대표, 한국시멘트협회 김재하 상무

협회, 시멘트산업 온실가스 감축연구회 워크숍 개최

온실가스 관련 현안 대응능력 향상,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다짐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인 KIERSOL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여일 박사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경기 양평에 위치한 더 힐하우스에서 시멘트업계 온실가스 담당 실무자와 기후변화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산업 온실가스 감축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사업 감축연구회 설명회 및 간담회와 전략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이뤄졌다. 설명회에서는 에어레인의 하성용 대표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여일 박사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기후사회연구소의 한빛나라 소장과 에너토피아의 박영구 대표는 2050년 글로벌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국내 온실가스 정책에 대하여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시멘트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정책에 대해 업계 실무자와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뤄졌다. 전략과제 중간보고회에서는 THE ITC의 김진효 팀장이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멘트업계의 온실가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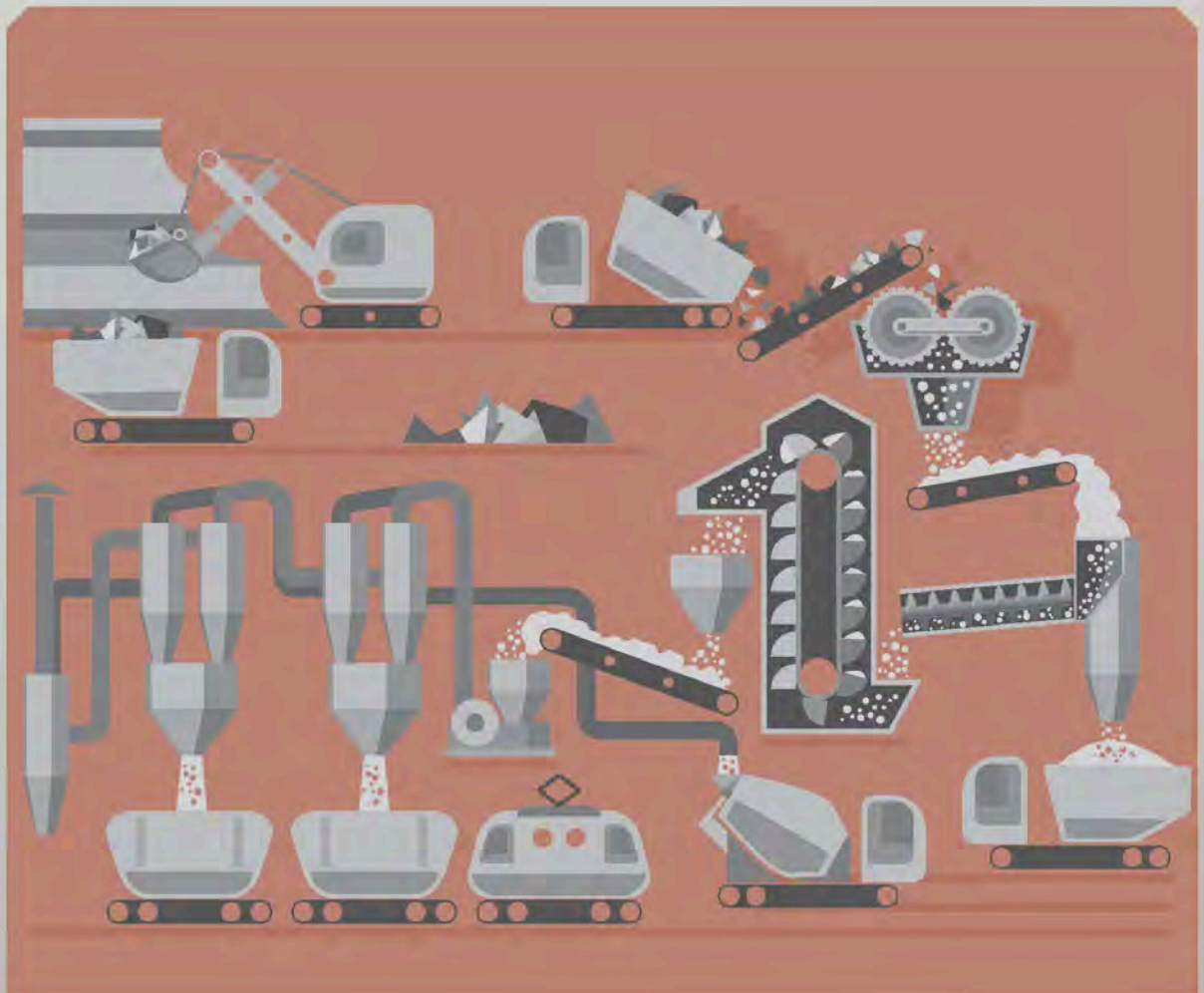
한국시멘트협회 김재하 상무이사(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 단체사진

일본산 수입 석탄재 관련 Q&A



지난 여름 반일감정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8월 19일 한국시멘트협회가 '수입석탄재 관련 시멘트업계 입장'을 발표하면서 진정되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협회는 8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수입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 또는 다른 원료로 대체해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시멘트지에서는 일본산 수입 석탄재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반일감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수입석탄재를 바라보는 선입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글 마지막 부분에는 '수입석탄재 관련 시멘트업계 입장' 성명서를 실었습니다. 시멘트업계의 석탄재 재활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석탄재의 용도 및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유?

A 시멘트 생산 시 주원료인 석회석 외에 반드시 점토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 및 천연광물 보전을 위해 1990년대 이후 점토광산의 개발 대신 석탄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유연탄을 태운 후 나오는 석탄재는 포스코 등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와 같은 부산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시멘트공장에서 점토 성분을 대체하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재는 천연원료인 점토보다 알칼리와 수분 함유량이 낮아 시멘트 원료로서 오히려 훨씬 우수합니다. 특히 시멘트가 건축재료로 사용된 후 안전성 측면에서 점토 사용 시멘트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점토와 석탄재의 성분 비교〉

구 분	성분 (%)		
	SiO ₂	Al ₂ O ₃	알칼리(K ₂ O, Na ₂ O)
점 토	62	22	2.5~4.0
석탄재	60	25	1.2~1.5

지난 1990년대 국내 발전소는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국내 시멘트업체와 석탄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들어 석탄재를 정제해 레미콘업체에 유상판매(3만원/톤,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게 되면서 시멘트업체가 필요로 하는 석탄재 물량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제해서 레미콘업체에 판매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운반비를 부담해 가며 시멘트업체에 공급하는 것보다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5대 화력발전소 석탄재 용도별 재활용 현황〉

(단위: 만톤)

연도	발생량	레미콘 혼화재	시멘트	성토재 등	매립
2018년	1,022	553	136	140	251

* 국내 5대 발전소 :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석탄재 부족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던 시멘트업계에 2002년 일본 발전사가 석탄재 공급을 제안한 후 국내산 석탄재 공급 부족분을 수입 석탄재로 충당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산 석탄재 사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업계의 국내 및 수입 석탄재 연도별 사용실적〉

(단위: 만톤)

구분	연도별 사용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내	129	142	142	128	138	144	187
수입	123	135	131	135	133	136	129
합계	252	277	273	263	271	280	316

- 석탄재란 -

-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유/무연탄)을 연소한 후에 남는 재(Ash)를 말합니다. 발생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비산재(Fly Ash)와 바닥재(Bottom Ash)로 구분합니다.
- 한국과 일본의 발전소는 연료인 유연탄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석탄재 품질도 거의 유사합니다.



Q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위한 자율협약'이후 석탄재 수입 증가 이유?

A 지난 2009년 10월, 국내산 석탄재의 재활용 증대를 위해 환경부와 5개 발전사, 9개 시멘트사가 국내산 석탄재의 우선 재활용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국내 석탄재 시장은 레미콘 혼합재 등 재활용 수요 증가로 발생량 대비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 (2009.10.)

- 발전사 : 석탄재 재활용 우선원칙 및 단순 매립 억제, 재활용시설 확충 추진
- 시멘트사 : ①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② 석탄재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수출용 시멘트 제조 외 수입 물량 최소화
③ 2009년 수입물량 기준 중장기적인 단계별 감축방안 강구 추진
- 정부(환경부) : 국내 석탄재 재활용 기술개발 추진과 석탄재 수급개선 위한 협력

당시 환경보전 여론 확대 및 자율협약에 따라 시멘트업계의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내산 석탄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일본산 석탄재를 부득이 계속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시멘트산업 석탄재 사용물량〉

(단위: 만톤)

구 분	2009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국내 물량(비율)	76 (49%)	129 (51%)	142 (52%)	138 (51%)	187 (59%)
수입 물량(비율)	79 (51%)	123 (49%)	131 (48%)	133 (49%)	129 (41%)

아래 표(국내 및 수입산 석탄재 재활용 현황)를 보면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 이후 국내산 석탄재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및 수입산 석탄재 재활용 현황〉

(단위: 만톤)

구 분	2009년	2018년	증가율
수입 석탄재	79	129	62%
국내 석탄재	76	187	145%
합 계	155	315	103%

Q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는 방사선(능) 우려가 없는가?

A 일본산 석탄재는 일본 원전사고지역인 후쿠시마와 반경 250km 이상 떨어진 발전소 물량만을 수입하고 있어서 방사능 우려는 없습니다.

또한 수입 석탄재를 들여오는 과정에 수입 전·후 방사선 검사를 비롯해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지방환경청의 방사선 모니터링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방사선 및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말부터 통관절차 강화를 통해 전수조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수입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수입 석탄재 방사선(능) 관리 프로세스〉

구 분	관리 현황
수입 전 방사선검사	·수입 전 선박별로 일본발전소에서 측정한 '방사선비오염증명서' 접수 및 확인
자체 방사선검사(A)	·수입되는 선박별로 하역 전 자체방사선 검사
공인기관 방사능검사(B)	·분기별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발전소별 수입석탄재)
원주지방환경청 방사선(능) 모니터링	·수입석탄재에 대해 실시간 방사선 모니터링을 위해 항구마다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운영 ·1회/분기 방사선(능) 검사
자료공개	·회사별 홈페이지 방사선(능) 분석결과 공개 - (A) 자체방사선검사결과: 월별 / (B) 공인기관방사능검사결과: 분기별

방사능 검사 결과 수입 석탄재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검출된 사례가 없으며, 방사선 역시 자연방사선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입 석탄재 방사선(능) 수준 [환경부 분석 결과('19년 2분기)]〉

구 분	하역항	방사선($\mu\text{Sv/h}$)	방사능(Bq/kg)		
			Cs-134	Cs-137	I-131
쌍용양회공업(주) 동해공장	동해	0.15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삼척	0.24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한라시멘트(주) 옥계공장	옥계	0.15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평택	0.24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대기 중 자연방사선 기준치: (평시) $0.3\mu\text{Sv/h}$ 이하

Q 일본 석탄재의 수입 중단시 시멘트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A 당장 수입을 중단할 경우 국내산 석탄재 공급량이 부족하여 점토광산 개발 및 사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과거 점토 개발이 중단된 곳은 이미 관광지로 탈바꿈한 경우도 많아 개발 시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개발 후 복구대책, 시멘트 제조원가 상승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 중단 시 국내산 석탄재 및 대체 원료의 안정적 확보까지 추가적인 원가부담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대체 원료 수급 불안정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멘트 생산의 차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현실이 되면 후방산업(제철, 전선)에 연쇄적 피해 및 부담이 발생하고 시멘트 생산 설비 가동률 저하로 국내 순환자원 재활용의 차질 및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국제 시장에서 일본산 수출 시멘트 대비 국내산 시멘트 수출 제품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며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감소 혹은 중단되더라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일본 내 발생하는 석탄재 중 국내 수입물량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며 일본 시멘트업계에서도 석탄재 수급 부족을 이유로 공급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일본 발전사는 물론 일본 시멘트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수입석탄재 관련 시멘트업계 입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시멘트협회는 관련 시멘트업체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국내 시멘트업계는 지난 8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수입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 또는 다른 원료로 대체해 사용하겠습니다.

석탄재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와 같이 전량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서, 전세계 시멘트공장에서 점토성분을 대체하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는 지금까지 수입석탄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통관 전·후 방사선 검사를 비롯해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지방환경청의 방사선 모니터링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방사선 및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왔으며, 그 결과를 각 업체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시멘트업계는 국내 석탄재 수급 불안정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발전사와 협력해 국내산 석탄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천연자원인 점토광산 개발 등 대체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적인 배려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멘트업계도 정부 정책에 따라 철저한 환경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19. 8. 19.

한국시멘트협회

국회토론회 지상중계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지난 8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실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을 정리해 게재한다.

지난 7월 초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반일감정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시멘트업체가 중요한 생산원료인 석탄재를 일본서 수입하는데 주목한 일부에서 '일본산 석탄재는 방사능 우려가 있다', '돈벌이에 집착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한다'며 청와대에 수입 금지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멘트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8월 19일,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여 나가고 국내산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진정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향후 석탄재 수입 등 논란 해소를 위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석탄재에 대해 경기도 내 건축사업에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한 시멘트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사용을 제한하도록 검토할 것이며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반입불가의 원칙을 두고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와 환경운동가를 자처하는 최병성이 발제를 하였고 패널토론에는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이 되어 진행을 맡았다. 패널로는 환경부 이재은 자원순환정책과장, 임양선 경기도청 자원순환과장,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전태완 자원순환연구과장,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승헌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의견을 이어갔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미나장 전경



토론회 패널 참가자들

발제Ⅰ : 석탄재 처리와 전망(현상과 개선방안)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는 수출입폐기물의 구분과 우리나라 및 일본의 석탄재 사용 현황을 설명하면서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은 89%인데 비해 일본 석탄재 재활용률 수출포함 무려 97~98%로 대부분 재활용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첫째, 관세청과 환경부의 공조를 통해 수출입폐기물 물질흐름 투명화 및 수출입폐기물 관리부서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비용투입 및 설비 투자 등 발전사의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플라이애시(Fly Ash, 비산재)를 얻을 수 있는 공정개발 및 보텀애시(Bottom ash, 바닥재) 최소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석탄재 매립 제로화를 위한 환경부 규제 및 정책 개선을 제기했다.

특히 또 다른 발제자인 환경운동가를 자처하는 최병성의 과도하고 악의적인 시멘트 유해성 논란 이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환경규제 및 과도한 환경안전 불안조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중금속 및 방사능 전수조사에 대해 경제성 및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데이터 등 팩트체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배재근 교수 발표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한다.)

발제Ⅱ : 일본 석탄재 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운동가 최병성은 지난 2008년경 시멘트 유해성 논란 발생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협의 끝에 마련된 순환자원 관련 기준 마련 이전의 자료만을 인용해 설명하면서 빈축을 샀다. 패널로 나선 국립환경과학원 전태완 과장과 배재근 교수로부터 날카로운 지적과 반박 앞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했는데 첫째, 우리나라만 모든 폐기물을 소성로에 투입하여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태완 과장은 국내 시멘트업계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재활용 하며 해외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많은 폐기물을 재활용 한다고 반박했다.[원료(2016년) : 한국 10%, 일본 41%, 독일 16% 등]

둘째, 2008년 시멘트 6가크롬 77ppm이 검출되었다고 강조했다는데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환경 규제 강화(2008년 6월)로 매달 시멘트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쓰레기 시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아토피는 조사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청으로 시멘트의 아토피 유발물질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전태완 과장은 반박했다.

이런 반론에 대해 최병성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재반박하지 못한 채 토론을 끝냈다.



토론회 시작 전 세미나실 모습

패널 지정토론

패널 토론 첫 발언을 한 세계일보 윤지로 기자(환경부 출입)는 환경부의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강화(전수조사)로 모든 방사능 우려가 해소될지 의문이며 수입 석탄재가 들어간 시멘트의 안전성 확인 및 국내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상 깊은 점은 십 여 년 넘게 시멘트업계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최병성이 사용해 온 ‘쓰레기시멘트’라는 용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국가적으로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쓰레기 시멘트’라는 부정적 용어의 사용은 재활용 방향 자체를 부정한다며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물론 최병성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재은 과장도 최병성의 발표 내용 중 환경부와 관련하여 과격한 용어의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8.8)’ 인터뷰 중 ‘환경부가 시멘트 생산량이 늘어서 석탄재 수입량이 늘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입 석탄재 사용량은 2009년에 비해 50% 증가한데 반해 국내산은 100% 증가했으며 천연광물의 개발이 어려워 석탄재 등 폐기물 사용이 확대된 것이므로 향후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여 환경안전 관리강화,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은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을 현행 75%에서 90%로 상향해야 하며 향후 경기도 발주 공사 시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한 시멘트 사용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폐기물 사용 등을 요청했다.

군산대학교 이승헌 교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순환자원을 재활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최병성이 주장하는 시멘트 등급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과거 최병성이 깨끗한 시멘트라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며 주장하던 중국산 시멘트역시 최근 들어 순환자원 사용량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시멘트의 안전성 평가는 시멘트가



토론회 주요 인사 참석 기념사진(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주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실훈 국회의원, 왼쪽에서 다섯 번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료로 들어가는 모든 구조물과 폐기 이후의 영향까지 분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 원료의 중금속 기준치 재검토를 위해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과 폐기물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재단 지현영 미세먼지센터장은 모든 환경규제는 엄격하고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사의 매립부담금을 강화해야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일본 폐기물 수입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폐기물 전수조사보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발언

끝으로 발제 및 패널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이날 토론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배재근 교수는 작심한 듯 “과학적 근거 없이 석탄재나 시멘트가 유해하다는 사실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팩트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스스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뭐든지 팩트를 정확히 짚고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근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석탄(유연탄)을 전량 수입한다. 그런데 일본이 방사능이 있는 석탄을 수입할 것인가?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웠는데 방사능이 나오겠는가? 도대체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폐기물, 중금속? 일본산이라서 많이 나올까? 환경적 문제는 그렇게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입석탄재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내 발전사들의 시멘트산업을 통한 석탄재 재활용 의지가 중요하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해 시멘트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호도해서도 안 된다”며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정폐기물, 유해성 폐기물(시멘트업계에서 부원료 및 보조원료로) 처리할 때 시멘트가 콘크리트화(고형화)된 후 유해물질이 용출되는지 수만 번 실험 했는데 중금속이 외부로 용출되지 않았으며 십년 동안 갖다 놓고 해도 용출이 안됐다”고 지적하면서 “100년 아니 200년이 지나더라도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교수도 과거 최병성도 참여한 ‘시멘트소성로 관리개선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멘트 폐기물 원료에 대한 많은 체계가 마련되었다며 시멘트 등급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천연원료만 사용할 경우 특히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입해야 할뿐만 아니라 중금속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부 이재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수입되는 석탄재에서 인공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률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2009년 65%→2018년 90%) 국내 발전사와 시멘트업계의 수요공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매립이 발생하고, 매립된 석탄재도 해수에 보관하여 염분이 높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주관 | 국회의원 설 훈 · 최병성 등 | 후원 | 경기도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좌장
강영구 서울대학교 인문정리학과 명예교수

발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최병성 최재원환경연구원

토론
이재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임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윤지호 세제연구소 이사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

토론회 포스터

수출 부진, 투자 감소, 소비 둔화 삼중고로 '악전고투'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019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성장 둔화와 개도권의 성장 약화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2019년 국내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8년보다 낮은 2.4%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여부, 중국경제 성장세, 글로벌 긴축 기조의 완화 가능성, 유가 및 환율 등 국제 가격지표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이, 내부적으로는 주요 업종들의 수출여건 개선 여부 및 반도체 경기,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의 조기 집행 여부가 국내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서는 산업연구원의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거시경제 전망

최근 실물경기, 완연한 하락세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에서 투자의 큰 폭 감소와 소비 둔화로 인한 부진이 이어지면서 완연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올 1분기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1%대로 하락했다. 수출(통관기준)은 반도체의 수출 감소와 수출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은 2017년 4분기부터 증가율이 급등락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 2월 이후 광공업에서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했다. 경기선행지표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11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이후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경제, 전년대비 하락 예상

전세계 실물경기는 지난해 말 선진권과 개도권의 동반 둔화로 인해 현저한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세계경제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진권에서 미국은 올해 들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고투자와 무역수지 확대 등에 힘입어 연 3%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유로권은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이다. 개도권에서는 중국이 올해 들어 투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 여파로 6%대 중반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 등 동구권과 중동 및 중남미 등 대다수 지역에서도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전세계 산업생산은 지난 연말에 2016년 중순 이후 처음으로 1%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1.2% 증가에 그치면서 2015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성장 둔화와 개도권의 성장 약화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성장 탄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치 조정폭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연간(†)	
세계	3.7					3.5		3.2	▲0.1
선진권 ¹⁾	2.6	2.6	2.5	2.2	1.8	2.3	-	1.8	-
미국	2.2	2.6 (2.2)	2.9 (4.2)	3.0 (3.4)	3.0 (2.2)	2.9	3.2 (3.1)	2.8	△0.2
유로	2.5	2.4	2.2	1.6	1.2	1.8	1.2	1.2	△0.2
일본	1.9	1.3	1.5	0.1	0.2	0.8	0.8	0.7	▲0.1
개도권	4.8					4.5		4.3	-
중국	6.8	6.8	6.7	6.5	6.4	6.6	6.4	6.2	0.0
세계교역	5.5					3.9		2.1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9.4월) 등.

주 1: 분기별 수치는 OECD의 성장률을, 연도별 수치는 IMF의 선진권 성장률을 의미.

주 2: 전망치 조정폭은 2019.1월과의 변화폭이며, ▲는 하향조정, △는 상향조정을 의미.

미국경제는 미국연방준비제도가사회(FED)가 현재의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내수 지지를 견인해 온 감세 정책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내수 부문의 둔화가 예상된다. 일본과 유로권은 대내외 여건 약세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 내지 그 이하의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의 구조개혁 지속과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연간 6%대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한편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들로는 G2(미중) 무역분쟁 해소 여부와 글로벌 긴축 기조의 완화 가능성, 정치적 불확실성(브렉시트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이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배럴당 66달러 수준 예상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유) 기준으로 2018년 12월 배럴당 4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 계속 상승해 2019년 5월 현재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다가 6월에는 다시 6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2019년 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구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68.1* (32.7)	70.9* (29.4)	69.5* (30.9)	65.4 (-4.0)	67.0 (-5.5)	66.2 (-4.7)

자료: 산업연구원

주: ()는 각각 전년동기비기준, 단위 %, *는 실적치

2019년 하반기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2019년 상반기 65.4달러(전년동기비 4.0% 하락), 하반기 67.0달러(전년동기비 5.5% 하락)로 연간 전체로는 66.2달러(전년동기비 4.7% 하락) 내외가 예상된다.

환율, 전년대비 상승 전망

2019년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 심화의 여파로 1,190원을 넘어서면서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빠른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5월초 미·중 무역협상 결렬 여파로 인해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9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9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144.9원(전년동기비 6.4% 상승), 하반기 1,160원(전년동기비 3.1% 상승), 연간 1,152원(전년동기비 4.7% 상승)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076.1 (-5.7)	1,124.6 (0.5)	1,100.3 (-2.4)	1,144.9 (6.4)	1,160 (3.1)	1,152 (4.7)

자료: 산업연구원

주: ()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기준(단위 %), 2019년 상반기는 2019년 6월 현재 기준.

2019년 국내 경제, 2.4% 성장 전망

2019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한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낮은 2.4%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내수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되면서 올해 성장률 하락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물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증대(공공부문 예산확대와 추경 집행 등)는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내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상저하고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8	2.5	2.7	2.0	2.7	2.4
민간소비	3.2	2.4	2.8	2.1	2.6	2.4
건설투자	-0.7	-7.2	-4.3	-6.4	-0.2	-3.3
설비투자	3.0	-7.4	-2.4	-13.6	1.7	-6.0
통관 수출 (억달러, %)	2,967 (6.3)	3,082 (4.6)	6,049 (5.4)	2,744 (-7.5)	2,948 (-4.3)	5,692 (-5.9)
통관 수입 (억달러, %)	2,656 (13.4)	2,696 (10.6)	5,352 (11.9)	2,559 (-3.6)	2,712 (0.6)	5,271 (-1.5)
무역수지	311	386	697	185	236	421

자료: 산업연구원

수출은 하반기에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단가 하락과 반도체 수출 감소 여파, 전년도의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연간 전체로는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수는 소비가 고령층 중심 고용 증대와 소비심리 약세 지속 등으로 연간 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지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성장률 하락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여부, 중국경제 성장세, 글로벌 긴축 기조의 완화 가능성, 유가 및 환율 등 국제 가격지표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주요 업종들의 수출여건 개선 여부 및 반도체 경기,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의 조기 집행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전년대비 증가율 하락

최근 민간소비는 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실질총소득(GDI)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4월 고용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확대가 대부분 소비여력이 낮은 60대 이상이 중심이라 소비 진작에 있어 제한적 영향에 그치고 있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도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민간소비는 고용 여건의 개선과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연간 전체로 전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구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3.2	2.4	2.8	2.1	2.6	2.4

자료 : 산업연구원

설비투자, 6.0% 감소 전망

설비투자는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추세선을 상회한 이후 대폭적인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4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태별로는 기계류 투자가 2018년 3분기 이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송장비 투자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증가세를 회복한 이후 연초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 추이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전년 동기비	설비투자	10.2 (4.3)	-4.3 (-8.4)	-9.4 (-4.0)	-5.3 (3.2)	-2.4	-17.4 (-9.1)
	기계류	11.2 (-0.5)	-2.5 (1.6)	-13.6 (9.2)	-14.4 (12.1)	-5.0	-21.7 (-19.5)
	운송장비	6.8 (5.7)	-9.6 (-11.1)	8.1 (-7.9)	23.4 (0.1)	6.7	0.1 (-5.0)

자료 : 한국은행

주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2019년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감소하지 않지만 상반기에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연간 전체 기준으로는 감소세가 예상된다. 다만 설비투자와 관련된 선행지표들(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조정압력 등)이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 추진과 추정 집행 가능성 등이 기업들의 투자 불안 심리를 다소 완화시키면서 하반기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비투자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하지만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연간 전체로 6.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3.3% 감소 전망

건설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이후 올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했다. 이렇듯 부동산 규제와 경기 둔화로 인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건물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토목건설 역시 플랜트 등 토목공사 부문에서의 침체 여파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건설기성액이 최근 들어 감소폭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 추이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¹⁾		
전년 동기비	건설투자	1.2	-2.5	-8.7	-5.7	-7.2	
	형태별	건물건설	3.3	-1.1	-8.6	-6.8	-7.6
		주거용 건물	5.6	-2.0	-4.7	-6.7	-12.0
		비주거용 건물	0.3	-0.1	-12.5	-6.8	-1.6
		토목건설	-4.6	-6.3	-9.0	-3.1	-6.0
	주체별	민 간	2.8	-4.8	-8.2	-8.0	-7.6
경 부		-6.9	4.9	-11.5	3.0	-4.5	
전기비	건설투자	0.9	-2.5	-6.0	1.8	-0.8	
	형태별	건물건설	0.2	-2.4	-5.5	0.7	-0.7
		주거용 건물	1.7	-4.6	-1.0	-2.9	-4.5
		비주거용 건물	-1.4	0.1	-10.4	5.1	3.7
		토목건설	2.9	-2.8	-7.4	5.1	-1.2
	주체별	민 간	1.8	-4.9	-4.6	-0.7	1.9
경 부		-3.1	8.4	-11.3	12.8	-11.2	

자료 : 한국은행

주 : 1)은 잠정치

2019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건물건설 부문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SOC 예산 증대 등으로 인해 토목건설 분야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투자는 올해 SOC 투자 증액 영향으로 지난해(-4.3%)보다 감소 폭이 줄어든 3.3%의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간별로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하지만 하반기에는 0.2% 감소하며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 지속될 듯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수출은 12월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올해 들어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데다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물량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석유화학·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출단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산업별로는 선박류, 자동차, 일반기계를 제외한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글로벌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 단가 하락 등으로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IT제품의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했으나 중국·중동에 대한 수출은 두 자릿수 이상 대폭 감소했고, ASEAN·EU·일본지역 수출도 소폭 감소했다.

상반기 수입의 경우 국내 경기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다. 원유 등 1차산품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비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했다.

2019년 하반기 수출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 둔화 등으로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연간 수출이 전년대비 5.9% 감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국내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자본재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이 예상된다.

종합적으로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697억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421억달러 정도가 예상된다.

2019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2,967 (6.3)	3,082 (4.6)	6,049 (5.4)	2,744 (-7.5)	2,948 (-4.3)	5,692 (-5.9)
통관기준 수입	2,656 (13.4)	2,696 (10.6)	5,352 (11.9)	2,559 (-3.6)	2,712 (0.6)	5,271 (-1.5)
무역수지	311	386	697	185	236	421

자료: 산업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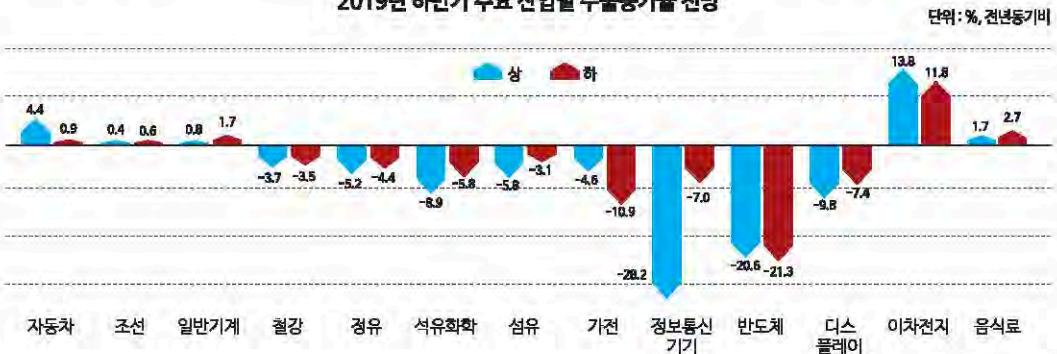
13대 주력산업 전망

주력산업 수출 부진 지속, 7.4% 감소 전망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제품단가 하락, 글로벌 경기 약세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디스플레이, 정유, 석유화학 등 주력제품의 단가 하락세가 수출 감소를 견인했다. 이차전지 수출만이 성장을 유지한 가운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음식료 등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13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지속,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반도체 가격 및 수출단가 약세 지속,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계산업군에서는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로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 수출은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여 수출단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작용한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면서 상반기에 6.2% 줄어든데 이어 하반기에도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IT산업군의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단가 하락이 지속되어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7%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자료: 산업연구원

주 1: 달러표시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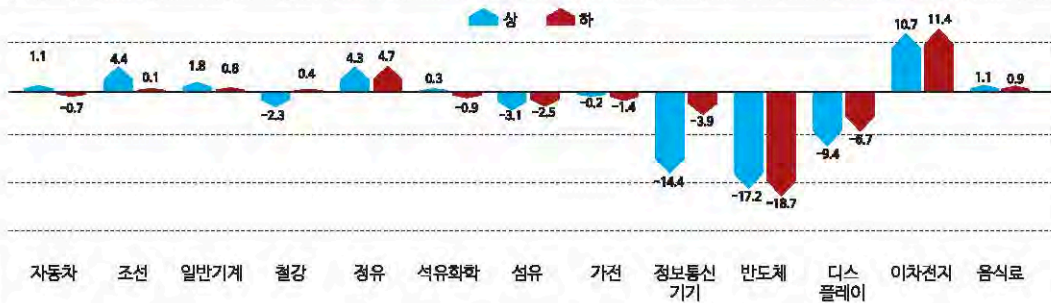
주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주력산업 생산, 상반기 부진 지속 전망

수출 부진, 완제품의 해외생산 확대, 소재부품의 현지조달 확대(←소재부품 수출 둔화), 완제품 수입 증가(←내수 확대를 수입 증가로 대체) 등으로 상반기 주력산업은 전반적인 생산 부진이 지속되었다. 품목별로는 수출 감소가 컸던 IT산업의 생산 부진이 현저한 가운데 수출실적이 양호한 시스템산업군의 생산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하반기 주력산업의 생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의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IT산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 및 자동차, 석유화학의 감소세 전환으로 하반기에도 생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에서는 하반기에 자동차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조선 및 일반기계에서의 생산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상반기 대비 생산이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철강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화학 및 섬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T산업군 역시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생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산업연구원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주력산업 내수, 비IT산업 개선되나 IT산업 둔화

상반기 주력산업의 내수는 비IT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부진 모습을 보였으나 IT산업은 신산업 및 프리미엄 제품 수요확대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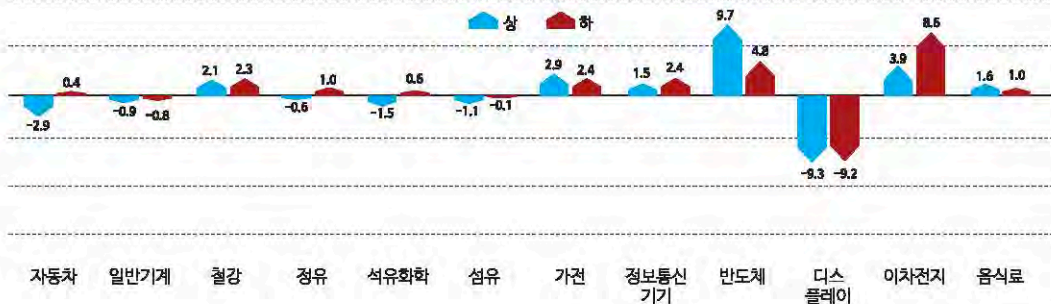


하반기 주력산업의 내수는 비IT산업의 내수 증가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IT산업은 반도체 내수의 성장세 둔화로 상반기 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의 하반기 내수는 자동차 내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일반기계의 내수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의 경우 철강 내수가 증가하고, 정유 및 석유화학의 내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T산업군에서는

반도체 및 가전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디스플레이 내수의 부진이 이어져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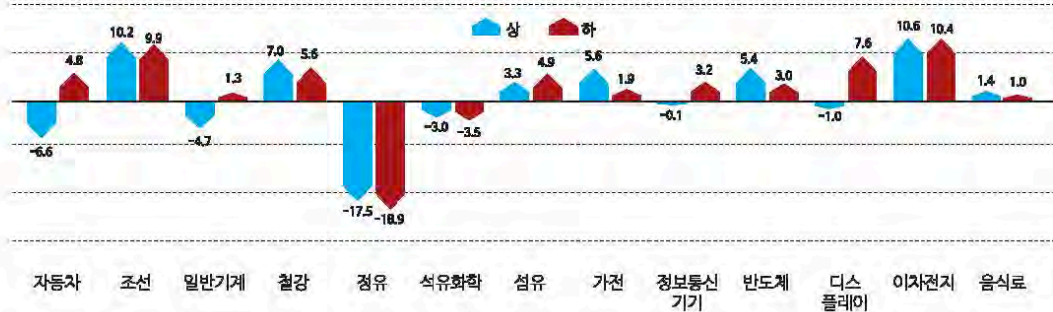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산업연구원

주: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주력산업 수입, 0.8% 증가세로 전환

상반기 주력산업의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비IT산업의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했다.

하반기 주력산업의 수입은 기계산업과 IT산업의 수입 확대로 0.8%로 증가세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하반기에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기 부문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기계의 수요확대로 수입도 전년동기대비 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정유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반기 소재산업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 IT산업 수입은 증저가 중국산 제품 및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5G 등 신산업 대응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하반기 산업전망 기상도

구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제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음식료	☁	☁	☁	☁	

자료: 산업연구원

주 1: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5%~-10, ☁-5~0%, ☁-0~5%, ☀5~10%, ☀☀☀10% 이상
 주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제,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주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올해 건설수주 전년 대비 5.8% 감소 예상, 5년 래 최저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145조5,000억원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면서 특히 하반기에는 감소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건설 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4.1% 감소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하반기 매매가격은 경기 악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위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 밝혔다. 여기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하반기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9년 하반기 동안 전국의 매매가격이 0.7% 하락하고, 전세가격도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가격의 경우 하반기 동안 수도권 0.5%, 지방 0.9%, 전국 0.7% 하락하여 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상반기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대출을 통해 전세가 하락폭을 극복하고 급매물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수요 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에 따른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가격은 준공이 계속됨에 따라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1.1%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전세시장은 2004년(-5.8%)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단위: 전기말 대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매매	전국	0.7	1.5	0.5	0.6	1.1	-0.9	-0.7	-1.6
	수도권	1.3	2.4	1.5	1.8	3.3	-1.0	-0.5	-1.5
	지방	0.2	0.7	-0.4	-0.4	-0.9	-0.9	-0.9	-1.8
전세(전국)	1.3	0.6	-1.0	-0.8	-1.8	-1.4	-1.1	-2.5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2019년 하반기의 연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동성 증가에 의한 주택시장 변화 기대가 존재하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가계 지불 능력 위축 요인이 오히려 크다”고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가 수요 창출보다는 저가 매물 유입을 줄여 기존 보유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향성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보상금 증가에 따른 상승 요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가 대토보상,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수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 공시가격 상승 이후 하반기 세 부담 현실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 수요 유입 여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대부분 지역의 주택 경기가 어렵고 전반적인 거래 감소로 인해 가격 상승장과 하락장으로 단순화되었다”며 “상대적 호조세인 대전, 대구, 광주 지역을 분석하면 노후주택 비중,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전망

단위: 호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전국	344,887	525,467	469,058	311,913	282,964	260,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2019년 주택 인허가 전망

단위:호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하
합계	515,251	765,328	726,048	653,441	554,136	480,000
공공 부문	63,320	76,428	75,802	76,629	81,082	80,000
민간 부문	451,931	688,900	650,246	576,812	473,054	400,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연구원은 분양시장도 유동성 확대, 분양가 규제 상황을 고려하면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미분양 증가, 사업 장기화, 수익형 상품 어려움 확대 등 주택사업자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며 “특히 상가, 오피스텔, 지식형 산업센터 등 개인에게 판매한 분양형 비주거용 상품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48만호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았다.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의 인허가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 부문에서는 가파른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145조5,000억원에 머물 것이라 예상하면서 특히 하반기에는 13.3% 감소함으로써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5.8% 감소함에 따라 2017년 시작된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3년 연속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9년 건설수주액은 2014년(107.5조원) 이후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지속된 건설수주 호황국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건설수주 감소의 주된 원인은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발주로 인한 공공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주가 주택 및 비주거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9년 국내 건설수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 수주가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수주는 1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발주 증가,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공공 수주는 9.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민간수주는 주택 수주를 비롯한 건축 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해 2014년(66.7조원) 이후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SOC 예산 증가, 대규모 민자 토목사업 발주, 민간의 일부 대형플랜트 발주 등 영향으로 토목 수주는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주의 경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규 입주 물량 과다, 거시경제 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할 전망이다. 비주거 건축 수주는 경제 침체, 오피스텔 공사 발주 감소, 전년도 수주 호조세로 인한 통계적 반락 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47.4	21.9	25.3	47.2	17.2	25.1	42.3	19.9	26.6	46.5
민간	117.5	56.3	57.1	113.3	54.2	58.0	112.2	53.6	45.4	99.0
토목	38.2	23.2	18.9	42.1	21.4	25.0	46.4	24.1	24.6	48.8
건축	126.7	55.0	63.4	118.4	50.0	58.1	108.1	49.4	47.4	96.7
주거	75.9	31.1	37.4	68.5	25.5	31.0	56.5	26.5	23.2	49.7
비주거	50.7	23.9	26.1	49.9	24.5	27.1	51.6	22.8	24.2	47.1
계	164.9	78.2	82.3	160.5	71.4	83.1	154.5	73.5	72.0	145.5
증감률 (% , 전년 동기비)										
공공	6.0	17.3	-12.0	-0.4	-21.4	-0.7	-10.3	15.5	6.0	9.8
민간	3.7	11.8	-15.0	-3.5	-3.7	1.6	-1.0	-1.1	-21.7	-11.8
토목	-16.0	42.7	-13.8	10.3	-7.9	32.3	10.2	12.8	-1.5	5.1
건축	12.6	4.2	-14.2	-6.5	-9.0	-8.4	-8.7	-1.4	-18.4	-10.5
주거	12.2	0.2	-16.8	-9.8	-18.0	-17.1	-17.5	4.0	-25.2	-12.0
비주거	13.2	9.8	-10.1	-1.6	2.8	3.9	3.4	-6.9	-10.6	-8.9
계	4.4	13.2	-14.1	-2.6	-8.7	0.9	-3.7	2.9	-13.3	-5.8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 2019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2019년 건설투자 전망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20.67	143.06	263.72	132.81	150.12	282.93	131.54	139.32	270.86	123.51	136.24	259.75
증감률	9.5	10.4	10.0	10.1	4.9	7.3	-1.0	-7.2	-4.3	-6.1	-2.2	-4.1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
 주 : 2019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건설투자액은 2015년 연쇄가격 기준



한편 건설 경기 동행지표인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4.1% 감소해 2018년(-4.3%) 이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실질 건설투자 금액 역시 2015년 이후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의 감소세가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에도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4.1% 감소해 경제 성장률을 0.6%p 하락시키고, 취업자 수를 13만 8,000명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경기의 하락세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거시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전망이다”라고 지적한 뒤 “건설 경기의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 발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신속한 추진, 2020년 정부 SOC 예산의 증액 편성, 부동산 규제 강도 조절을 통한 주택투자의 급락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 주요 국가별 시멘트산업 동향



베트남

9월 시멘트 판매, 전년동월대비 2% 증가

2019년 9월 베트남의 시멘트 판매량은 8.196Mt으로 전년동월대비 2%, 전월대비 1%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베트남시멘트협회(Vietnam Cement Association: VNCA)가 밝혔다. 이 중 5.537Mt은 내수용으로 판매되었는데 전년동월대비 4%, 전월대비 7%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영기업인 베트남국영시멘트공사(Vietnam Cement Industry Corporation: VICEM)의 2019년 9월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 증가한 1.836Mt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합작회사의 판매량은 1.401Mt으로 9% 감소하여 전월대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기타 베트남 시멘트 생산업체는 2019년 9월에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2.3Mt을 기록했다.

2019년 9월 시멘트 수출량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한 0.809Mt에 이르렀으나, 클링커 수출량은 전년동월대비 9% 감소한 1.85Mt을 기록하였다.

2019년 1~9월 베트남 생산업체의 시멘트 판매량은 총 71.587Mt로 전년동기대비 1%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48.052Mt에 이르는 반면 수출량은 23.525Mt으로 1% 감소하였다.

시멘트 생산업체별로는 VICEM이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한 16.2Mt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나 합작회사는 4% 하락한 13.116Mt에 머물렀다. 베트남의 기타 시멘트 생산업체는 7% 늘어난 18.736Mt의 판매량을 보였다.

1~9월 시멘트 수출량은 8.615Mt으로 35% 늘어났으나, 클링커 수출은 15% 감소했다.



말레이시아

3/4분기 시멘트 가격 상승 전망

2019년 3분기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건설자재 분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대기업인 YTL사가 라이벌 생산업체인 라파즈(Lafarge)사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시멘트 부문의 가격 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시멘트 가격이 2019년 1분기에 톤당 220말레이시아링깃(미화 52달러)에서 약 1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2019-20회계년도 시멘트 소비량 둔화 전망

신용평가회사인 ICRA는 인도의 2019-20회계년도 시멘트 소비량 증가세는 7%로 2018-19회계년도의 증가율인 13%에 비하여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만 현 회계년도의 평균 시멘트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생산 비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았다. ICRA의 기업신용평가 부문 선임부회장 겸 그룹 총수인 사비야사치 마주다르(Sabyasachi Majumdar)는 “2019-20회계년도에는 시멘트 수요가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총선거로 인하여 각종 프로젝트의 실행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에 덧붙여 “2019-20회계년도 1분기에 이미 성장세 둔화가 시작되었으며 2분기 시멘트 소비량도 우기로 인한 발주 감소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ICRA는 인도의 시멘트 수요가 2019-20회계년도 3분기부터는 인프라 분야(특히 도로, 철로 및 관개 등)에 대한 투자 증가 및 다양한 주택공급계획으로 인하여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인도의 시멘트 생산량은 2019년 4월 29.2Mt으로 전월대비 12% 감소하였다. 이어 5월에 28.6Mt으로 2.1%, 6월에 28.4Mt으로 0.6%씩 감소하였다.



우즈베키스탄

1~7월 시멘트 수입액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7월 우즈베키스탄의 시멘트 수입액은 미화 1억56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7월 우즈베키스탄의 시멘트 생산량도 전년의 4.69Mt에서 17.6% 증가한 5.399Mt으로 늘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시멘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 10월부터 지난 2018년 10월에 도입하였던 수입 시멘트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란

시멘트 수출 17% 증가

이란은 이란력 초기 5개월(2019년 3월 21일-8월 22일)의 기간 중 5.48Mt의 시멘트 및 클링커를 수출하였다고 이란 시멘트 클링커 수출 시장 서기 압둘레자 셰이칸(Abdolreza Sheikhan)이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클링커 수출이 2% 가까이 감소한 것이자 시멘트 수출이 17%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란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약 25.17Mta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였다.



이라크

정부, 나자프주 국영 시멘트 공장 재건 승인

이라크 재정부(Finance Ministry)는 최근 중남부 나자프 주(Najaf governorate) 소재 국영 시멘트 공장의 재건을 승인하였다고 현지 언론이 밝혔다. 이 시멘트 공장의 재건 사업은 8월에 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 의회 노동사회위원회의 파딜 알-파틀라위(Fadhil Al-Fatlawi) 의원은 이 계획이 전쟁으로 파괴된 모든 공장을 재건하고자 하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번에 재건되는 공장은 40년 전 180,000tpa의 설계용량에 따라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

레이수트 시멘트, 오만 중동부에 1백만톤급 분쇄 유닛 설치

오만 레이수트 시멘트(Raysut Cement Co) 이사진은 오만 중동부 지역의 두쿰(Duqm) 지역에 신규 분쇄 유닛을 설치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화 3,000만달러가 투자되는데 9월부터 건립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폴란드

1~8월 시멘트 생산 전년동기대비 0.4% 증가

폴란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ffice; CSO)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폴란드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18.94Mt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8월 생산량은 이미 12.3Mt이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함으로써 또 다시 신기록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0년을 앞둔 시점에서 고라체 시멘트(Gorazdze Cement)의 안드레이 레클릭(Andrzej Replik) 회장은 WNP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멘트 생산량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되면서 올해의 최종 결과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레클릭 회장은 시장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역동성을 증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레클릭 회장은 동유럽에 더 많이 소재한 시멘트 공장의 이산화탄소(CO₂) 보조금을 고려하여 “각종 기후정책에 관련된 비용을 보면 폴란드 동부 국경 및 EU 전체를 통과하는 수입 시멘트와 같이 우리 업계에 대한 위협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코

제15차 시멘트·화학 국제회의 개최

제15차 시멘트·화학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Chemistry of Cement)가 20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86명의 중국 참가자를 비롯한 664명의 대표단은 물론 체코 국내 생산업체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3개의 세션을 통해 31회의 강연이 개최되었다. 과학 관련 프로그램은 시멘트 및 클링커 화학 부문, 나노시멘트(nanocement),

첨가제, 대체 결합재(alternative binders)와 각종 표준 및 법령에 대한 최신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부속 건축소재연구소실(Laboratory of Construction Materials)을 이끄는 프레드 글라서(Fred Glasser)와 카렌 스크리브너(Karen Scrivener)가 ‘시멘트 화학의 발전 - 지난 백 년과 미래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개막식 기조연설을 하였다.



모로코

모로코 시멘트 배송량 증가

모로코시멘트협회(APC)에 따르면 모로코 국내의 시멘트 수송량은 2018년 9월의 1.04Mt에서 올해 9월에는 1.14Mt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부문에 대한 수송량은 0.768Mt으로 3.2% 증가한 반면, 레미콘 회사에 대한 수송량은 43.8%나 증가한 0.183Mt을 기록하였다. 모로코에서는 지난 9월 총 42,783t의 시멘트가 기간시설

부문에 공급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7.2%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9월까지 모로코 시장에서는 10Mt의 시멘트가 공급되어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제리

2019년 7월 시멘트 수출 급등

알제리 세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알제리의 시멘트 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7배 이상 증가한 미화 4,241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경시멘트 및 클링커의 수출량도 2018년 7월의 503만달러에서 증가하였다. 한편 알제리 산업광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Mines)의 예측치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알제리는 시멘트 수출량을 미화 5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같은 기간 시멘트 생산량의 증가분은 10Mt에서 15M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케냐 상반기 시멘트 수출량 65.3% 감소

케냐중앙은행(Central Bank of Kenya: CBK)이 발표한 시멘트 수출 예비통계에 따르면 케냐의 2019년 상반기 시멘트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4,000만케냐실링(KES)에서 65.3% 하락한 3억6,228만케냐실링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의 시멘트 수출은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신규 분쇄공장 건립 및 브라운필드 분쇄시설(brownfield grinding) 확장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케냐의 시멘트는 지금까지 상당물량을 우간다 시장에 공급해왔으나 우간다 현지의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밤부리(Bamburi)에서 가동 중인 케냐업체 공장의 공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네갈

2019년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 안정적 성장세

2019년 상반기 세네갈의 시멘트 생산량은 3.543Mt으로 전년동기대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사헬 인텔리전스(Sahel Intelligence)가 발표하였다. 한편 세네갈 소재 시멘트 공장의 2019년 6월의 생산량은 전년동월의 0.56Mt과 비교하였을 때 6% 증가한 0.59Mt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디부아르

라파즈홀심 코트디부아르, 신규 저장시설 개설

라파즈홀심 코트디부아르(LafargeHolcim Cote d'Ivoire)가 중북부에 위치한 브와케(Bouake)에 신규 시멘트 저장시설을 개설함에 따라 거래업자들이 아비장(Abidjan)까지 가지 않고도 10t 이상의 시멘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라파즈홀심 코트디부아르에 따르면 이 신규 저장시설은 포장된 대부분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PCA, 2020년까지 중간 수준 수요 예상

미국포틀랜드시멘트협회(US Portland Cement Association; PCA)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시멘트 수요가 중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PCA는 시멘트 소비량이 2019년에는 2.4%,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7%와 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PCA 선임 부회장 겸 수석 경제학자 에드 설리번(Ed Sullivan)은 “도로, 교량, 수도 및 철도 분야에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200억달러를 투자하는 2018년 연방 예산의 혜택을 공공건설 부문이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PCA는 완만한 인플레이션 속도와 지속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지체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4%로 예상되나, 2020년 및 2021년에는 각기 2.1%와 1.7%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PCA는 미국 경제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불경기가 근래에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 믿지만 해당 데이터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바

쿠바 시과니(Siguane) 공장, 소성로 가동 개시

1년 반 동안의 작업 중단과 수리 작업 끝에 쿠바 시과니(Siguane) 공장이 가동을 재개하였다.

담당 엔지니어인 로드리게즈 페레스(Rodriguez Perez)는 “1년 반 동안 전체 공정을 완료할 수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최근 몇 년간의 빠른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수입 부문에서 300만쿠바페소(미화 약 113,208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다른 국내

생산업체와 함께 공장의 기술 부문 장비 중 약 80%를 재생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사는 소성로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시엔푸에고스(Cienfuegos) 지역에서 생산한 클링커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여 왔다. 그 결과 연료 제한이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쳤던 올해 9월까지 쿠바 시장에 약 1500tpm 규모의 시멘트를 공급하였다.

한편 페레스 엔지니어는 이번 공정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성로 가동에 들어가 상티스피리투스(Sancti Spiritus)와 시에고 데 아빌라(Ciego de Avila) 지역에서의 수요에 대응하는 회색시멘트 생산에 나설 예정이라 밝혔다.



자메이카

캐리비안 시멘트, 사상 최초로 아이티에 수출

자메이카의 캐리비안 시멘트(Caribbean Cement Co)가 킹스톤(Kingston) 소재 공장의 초과 생산에 힘입어 7,500t의 추가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사상 최초로 클링커를 아이티(Haiti)에 수출하였다.

해당 공장은 지난 4년간 40억자메이칸달러(미화 약 1억6,200만달러)를 투자하고, 훈련 및 보건안전 부문과 공장 환경 개선에도 50억자메이칸달러를 투자하는 등 꾸준히 설비투자를 진행해왔다.



코스타리카

국산 및 수입산 시멘트에 5% 세금 부과 예정

시장 왜곡을 방지할 목적으로 앞으로 코스타리카의 모든 국내산 및 수입산 시멘트에는 5%의 공통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당 세금은 과나카스테(Guanacaste)와 카르타고(Cartago) 및 산호세(San Jose) 지역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에만 부과된 바 있다. 이번 법령 제정에 따라 코스타리카 국내 세 개 시멘트 제조사 중 두 곳이 수입산 시멘트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코스타리카 의회 의장은 이번 시멘트세 부과건은 정기 국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이전에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 밝혔다.



브라질

10월 시멘트 판매량 전년동월대비 9.2% 증가

2019년 10월 브라질의 시멘트 판매량은 총 5.2Mt으로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하였다고 브라질시멘트협회(SNIC)가 발표하였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6.9%씩 증가하였다. 수입량을 포함한 총소비량(apparent consumption)은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한 5.2Mt에 달했고, 수출량도 2018년 10월의 7,000t에서 2019년 10월 11,000t으로 늘어났다.

파울로 카미요 페나(Paulo Camillo Penna) 브라질시멘트협회(SNIC) 회장은 “건설 부문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동부 및 중서부의 부동산 부문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간산업 부문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의 시멘트 누적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45.8Mt에 이르렀으며, 총소비량도 3.4%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8월 시멘트 수송량 5.8% 감소

아르헨티나는 2019년 8월의 시멘트 수송량이 전년 동월의 1.117Mt에 비해 5.8% 하락한 1.052Mt을 기록하였다. 국내 유통량도 1.113Mt에서 1.047Mt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출량은 4,611t에서 4,230t으로 줄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내수는 국내 생산량으로 충족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시멘트 수입량은 기록되지 않았다.



콜롬비아

7월 시멘트 소비량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2019년 7월 콜롬비아의 시멘트 소비량이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한 1.113Mt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멘트 생산량은 1.118Mt으로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 및 계약업체의 유통량(off-take)은 15.8% 늘어났으나, 소매 부문의 매출은 12.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밖에 레마콘 회사의 매출은 9.5% 증가하였다.

안티오quia(Antioquia) 지역 운송량이 7월에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한 가운데 바예 델 카우카(Valle del Cauca) 지역은 23.3%까지 늘어났다. 볼리바르(Bolivar) 지역의 매출이 24.3% 증가한 가운데 쿤디나마르카(Cundinamarca) 지역이 9.4% 증가했고, 보고타(Bogota) 지역도 유통량이 9.4% 늘었다.

2019년 1~7월 콜롬비아의 시멘트 총 유통량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7.064Mt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콜롬비아 국내 시멘트 공장의 생산량은 12.755Mt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였다. ▲

《출처 International Cement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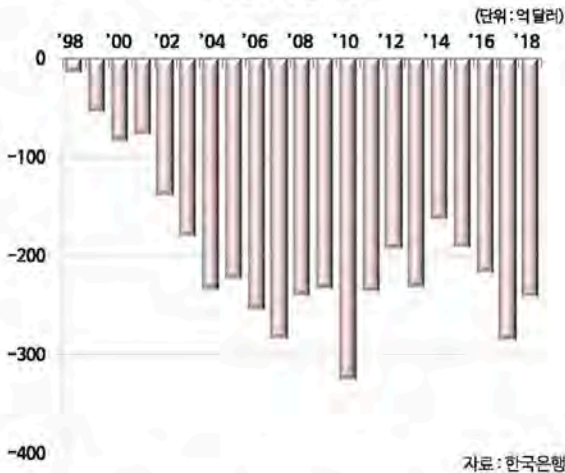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양국 간 무역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우리나라의 대 일본 산업경쟁력이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력 격차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 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분석하면서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할 경우 한·중 간 사드사태나 최근 한·일 간 수출규제 사례처럼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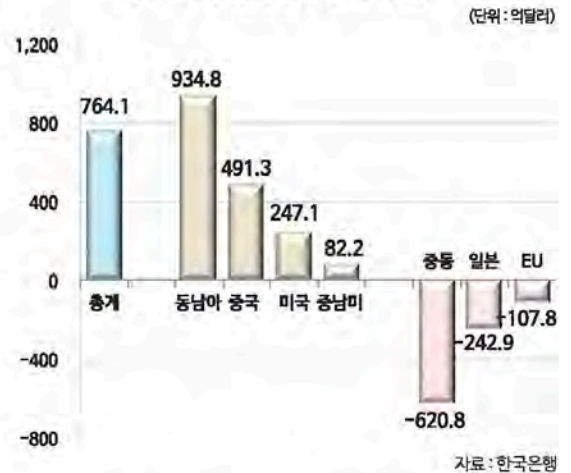
한·일 교역의 개요

우리나라의 대 일본 경상수지는 통계로 제공되는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폭은 연평균 200억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대 일본 경상수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220억달러 내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은 국가단위 기준으로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이며 원유 수입 대상 국가들인 중동지역의 개별 국가들보다 적자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대 일본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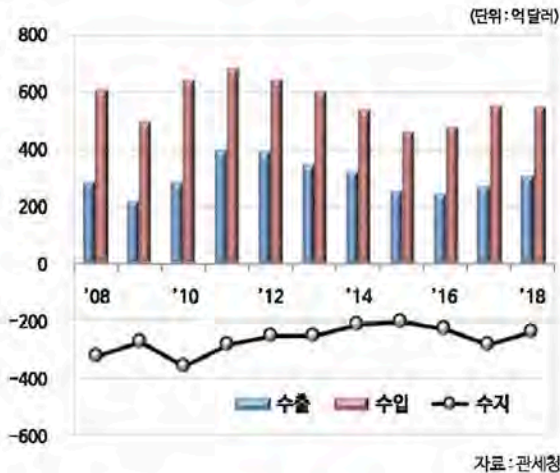


주요 국·지역별 경상수지(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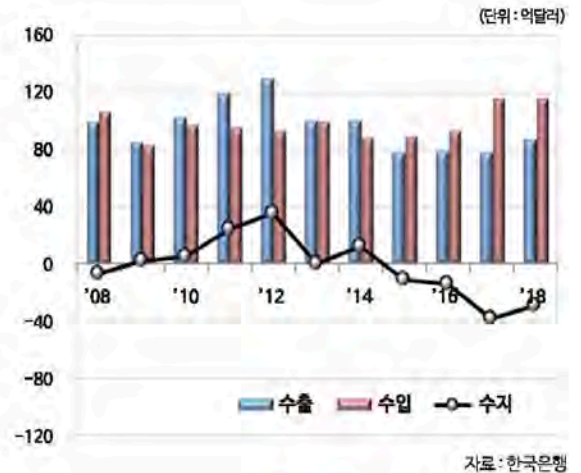


한·일 간 무역 및 서비스 수지를 살펴보면 최근 10여 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서비스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대 일본상품 수출 및 수입은 규모 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역적자 규모는 연평균 260억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대 일본 서비스 수지를 살펴보면 2012년 약 40억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일 상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한·일 서비스 수출입 및 무역수지



한·일 상품 교역 구조의 특징

한·일 교역의 위상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시장 측면에서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어 제5위의 수출대상국이며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일본은 중동국가까지 포함하더라도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이다.

한국의 대 일본 상품 수출입 위상(2018년)

수출			수입			수지		
순위	국가	규모(억불)	순위	국가	규모(억불)	순위	국가	규모(억불)
1	중국	1,621.3	1	중국	1,064.9	261	일본	-240.8
2	미국	727.2	2	미국	588.7	260	사우디	-223.8
3	베트남	486.2	3	일본	546.0	259	카타르	-157.7
4	홍콩	460.0	4	사우디	263.4	258	쿠웨이트	-115.4
5	일본	305.3	5	독일	208.5	257	독일	-114.8

자료: 관세청

일본의 대 한국 상품 수출입 위상(2018년)

수출			수입			수지		
순위	국가	규모(조엔)	순위	국가	규모(조엔)	순위	국가	규모(조엔)
1	중국	15.9	1	중국	19.2	1	미국	6.5
2	미국	15.5	2	미국	9.0	2	홍콩	3.6
3	한국	5.8	3	호주	5.1	3	한국	2.2
4	대만	4.7	4	사우디	3.7	4	대만	1.7
5	홍콩	3.8	5	한국	3.6	5	싱가포르	1.5

자료: 일본 재무성

2018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수출시장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수출대상국이며 중국, 미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제5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한국은 제3위의 무역수지 흑자국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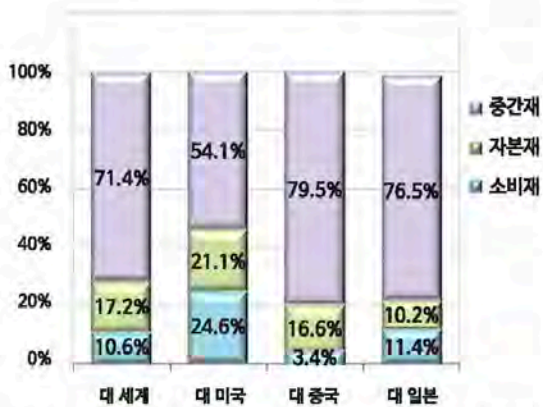


한국의 대 일본 수출 구조의 특징

일본은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했으나 그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38.5%에서 점차 축소되어 2018년 5.0%까지 줄어들었다.

대 일본 수출구조는 산업재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 총 산업재 수출에서는 대 일본 산업재 수출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에서 소비재 11.4%, 자본재 10.2%, 중간재 7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산업재(중간재+자본재) 수출에서 대 일본 산업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의 주요 시장별 가공단계별 수출비중 (2018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일본 산업재 수출비중 (대 일본 산업재수출/총 산업재수출)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생활용품, 금속 등이 있다. 의존도가 중간 정도인 산업은 화학,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섬유·의류 등이고 기계, 전기·전자 등은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업별 주요국 수출/산업별 총수출 비중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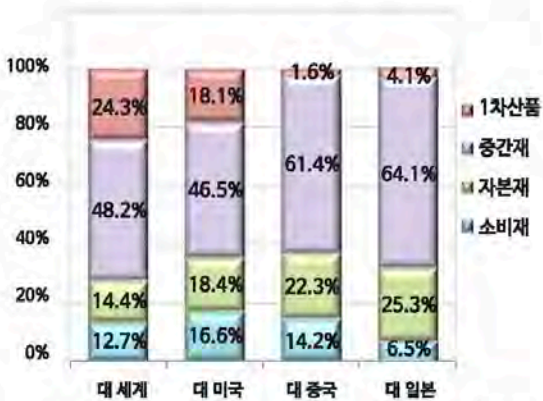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일본 수입 구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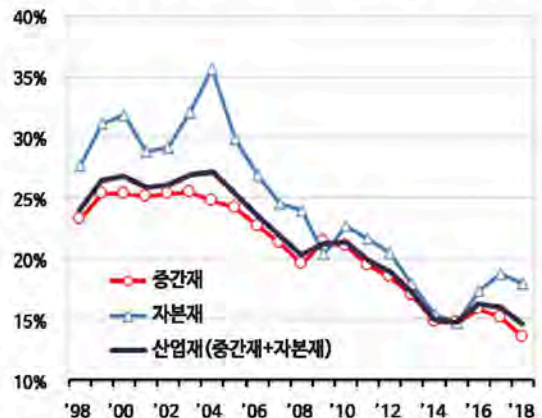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입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0.8%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미국, 중국, 일본 3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대 일본 수입 구조에서 산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판단된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입에서 소비재 6.5%, 자본재 25.3%, 중간재 6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산업재(중간재+산업재) 수입에서 대 일본 산업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이다.

한국의 주요 시장별 가공단계별 수입비중 (2018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일본 산업재 수입비중 (대 일본 산업재수입/총 산업재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산업재 수입에서 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기계, 금속, 화학 등이다. 전기·전자, 생활용품, 섬유·의류 등은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업별 주요국 수입/산업별 총수입 비중 (2018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 산업의 대 일본 경쟁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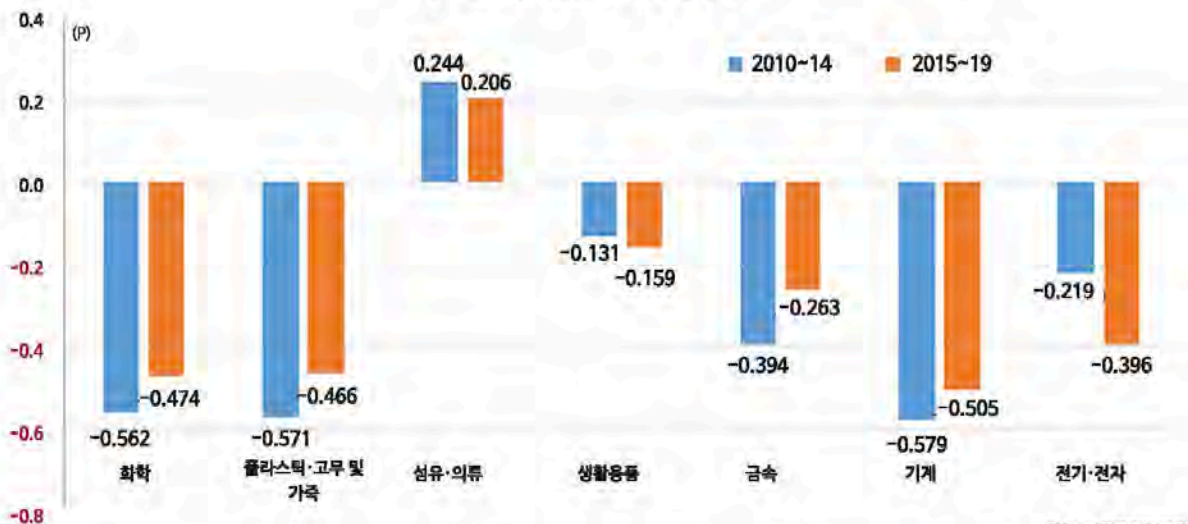
TSI를 이용한 한·일 산업경쟁력 분석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¹⁾ 분류 체계 기준으로 주요 산업의 한·일 간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²⁾ 분석 결과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화학산업 전체로는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적 열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석유·화학은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들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역시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머물고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섬유·의류산업은 일본에 대해 우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한·일 경쟁력 격차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활용품의 경우 일본에 비해 상당기간 대등 또는 소폭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속산업의 대 일본 경쟁력은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에 빠르게 개선되면서 점차 경쟁력 격차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하위산업인 철강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비철금속산업은 철강에 비해 경쟁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산업의 대 일본 TSI 및 경쟁력 평가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1: 본 연구에서 우·열위 평가의 절대열위는 TSI -0.4 미만, 열위는 -0.4~-0.2 미만, 대등은 -0.2~0.2, 우위는 0.2~0.4, 절대우위는 0.4 초과로 평가

주 2: 개선 여부 평가의 개선은 TSI의 2015~19년 평균치가 2010~04년에 비해 크게 상승, 악화는 2015~19년 평균치가 2010~04년에 비해 크게 하락

1)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러 개의 HS코드를 합쳐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무역동계체계임

2)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란 국가별, 국가 간 특성을 통해 절대적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TSI가 10이면 해당 품목에서 황진 수출특화이며, -10이면 원천수입특화, 0이면 수출입 규모가 같은 것을 의미함, 즉 TSI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위산업 중 기초산업기계산업은 추세적으로 개선 중이지만 여전히 절대열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기계 역시 절대열위 상태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개선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정밀기계산업의 경우 상당기간 절대열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조짐도 미미한 상태이다. 수송기계분야에서 자동차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있으며, 경쟁력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단 자동차부품산업은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그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해양구조물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자전자산업은 최근 대 일본 경쟁력이 급락하는 모습이나 세부 업종별로는 경쟁력 추세에 있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위산업 중 무선통신기기는 2010년 이후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양국 간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전산업은 최근 들어 열위에서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반도체산업 전체로는 최근 대일본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메모리반도체산업의 경우 일본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은 최근에 대 일본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대 일본 수입의존도 분석

HS 6단위 기준 수입품들의 대 일본 수입의존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의존도 50% 이상인 품목수는 253개, 90% 이상인 품목수는 48개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 일본 수출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의 총수입액은 158.5억달러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대 일본 수입의존도는 71.4%, 품목수는 253개로 나타났다. 또한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총수입액은 27.8억달러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대 일본 수입의존도는 96.5%, 품목수는 48개로 분석된다.

한편 90%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수입액 규모로는 광물성생산물(10.9억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5.4억달러),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5.1억달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품목수로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14개), 비금속과 그 제품(10개),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7개) 등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목 중 대 일본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의 개요

(단위: 억달러, %, 개)

HS 분류 명칭	대 일본 수입액 (A)	총수입액 (B)	A/B	6단위 품목수
5부 광물성 생산품	10.9	11.2	97.3	6
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5.4	5.5	98.4	14
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5.1	5.3	96.2	7
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0.05	0.05	99.6	1
13부 석·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 및 그 제품; 도자제품; 유리과 유리제품	2.3	2.3	97.5	2
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2.0	2.2	92.1	10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	1.9	2.1	91.7	5
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0.1	0.1	97.7	2
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시계·악기 및 그 부분품	0.04	0.04	94.2	1
합계	27.8	28.8	96.5	48

자료: UN Comtrade

주: 2018년 기준, HS코드 6단위 기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우리나라의 대 일본 산업경쟁력이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경쟁력 격차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 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한·중 간 사드사태나 최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한 산업경쟁력을 미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계 경제 지형의 급변 속에서 한·중·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및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가 절실하다. 한·일 교류에 있어 기본 방향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동북아 경제권 전체 상호번영의 추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국 간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중장기 경제협력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올림픽을 계기로 한·중·일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아울러 한·일 양국 간 다방면에 걸쳐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켜야 한다.

두 번째, 동북아 분업구조에 자유무역주의 원리 이외에 정치·외교상 패권주의가 작용하는 추세에 대응한 사고 전환 및 새로운 중장기 경제 전략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접근 방법을 순수한 경제관계가 아닌 정치경제학적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제품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 모두 동북아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동북아 내에서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경제적 분쟁이 발생할 높기 때문에 한국 내에 경제 분쟁 대응 시스템의 상시화, 상대국의 여론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능력 강화, 국제기구를 통한 실효적 공동 대응이 가능한 통상외교 네트워크 강화 및 외교력 제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산업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역량 확보와 함께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환상보다는 현재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를 직시하는 한편 기업의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개입도 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네 번째,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무역 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 인력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고위험·고수의 업종인 소재·부품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수요기업과 소재·부품 생산기업 간 연계를 강화시켜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는 한편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품목들의 비교우위 확대 전략이 동시에 실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 번째, 민간차원에서 기업들이 경제 외적인 충격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 또는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산업협력 시스템’ 구축에 경제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및 국내 공급망의 부가가치사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글로벌 쩐의 전쟁 점입가경, 해외 인프라 시장서 찾는 미래

중국 일대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움직임 바빠져
한국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으로 경쟁 뒤늦게 합류
건설·엔지니어링·시멘트 등 연관산업 공동 해외진출 기대

글 / 이균호 머니투데이방송 건설부동산부장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을 점령하기 위한 글로벌 썬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일대일로로 앞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600억달러에 달하는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에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는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해 '질 좋은 인프라 정비'를 내세운 일본도 글로벌 썬의 전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을 주도할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출범한지 1년을 넘긴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썬의 전쟁 속에서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KIND의 역할에 따라 건설업계는 물론 엔지니어링업계와 시멘트업계 등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진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中 일대일로 견제할 美 USIDFC 곧 출범

지난해 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새 대외 원조기관인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창설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이름을 바꿔 신설되는 USIDFC는 아직 공식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민간에 론(Loan) 투자를 주로 하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는 유상원조(Development Credit Authority, DCA)를 합병해 출범하게 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획됐으며 저개발국가나 시장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돕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한 외교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다.

신설되는 USIDFC의 자금투자 한도는 기존 29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특히 기존 OPIC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출만 제공했던 것에서 벗어나, 직접 프로젝트 지분을 투자(에쿼티)할 수 있게 됐다. 사업타당성평가를 지원하고 해외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규정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지분투자 규모는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 금액의 20%로 제한되며, USIDFC 지분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35% 이하로 한정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USIDFC의 금융지원이 '로컬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개도국의 개발 프로젝트에 금융자금을 지원할 때 미국 건설사 등 자국 콘텐츠를 필수로 활용해야 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와 일본 JOIN 움직임은?

글로벌 인프라 개발시장을 자극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과거에 존재했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를 '일대(一帶)'로, 중국-동남아-서남아-유럽-아프리카 '일로(一路)'로 잇는 거대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통상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 건설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이미 세계 18개 나라, 46개 사업에 총 85억달러(약 10조원)를 투자했으며, 지난 5월 2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채권도 발행했다.

2015년 12월 중국 주도로 설립된 AIIB는 애초 가입국이 57개국이었지만 3년 만에 몸집을 급속히 키웠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베냉, 지부티, 르완다 3개국 가입을 승인하면서 회원국이 100개로 늘었다.

1966년 미국과 일본 주도로 필리핀에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이 68개국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이 KIND를 만들기 4년 전인 2014년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이미 만들었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는 사업 구상과 시공,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형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정부에 제안하는 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있다. 20여건의 해외사업투자를 진행하면서 내년까지 총 327조원의 수주달성 목표를 세우고 있다.

JOIN도 막대한 자금을 글로벌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JOIN은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는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해 '질 좋은 인프라 정비'를 내세우고 있다. 창립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미쓰비시, 스미토모, 마루베니 등 종합상사들이 동남아 주요 발주처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JOIN의 장점이다.

일본은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협력은행(JBIC), 공적개발원조(ODA)를 책임지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외에도 전통적 우방국들을 끌어들이어 자금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어서 미중과의 경쟁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늦었지만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기대 거는 한국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을 둘러싼 미중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다.

KIND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수출입은행 등 총 9개 기관이 출자했다. 법정자본금 5,000억원 규모의 해외인프라사업의 발굴, 개발, 금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4건의 해외 인프라 개발에 대해 투자 의결을 했고 전체 규모로 보면 약 16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 및 폴란드 발주처인 아조티(Azoty) 그룹과 함께 폴란드 폴리머리 폴리제(PDH/PP) 플랜트 및 터미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협약서(LOC)에 서명, 출범 이후 최대 프로젝트 수주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하지만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미중일 투자 규모에 비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

허경구 KIND 사장은 "인프라 프로젝트 해외수주 경쟁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국가대항전"이라며 "이러한 국제경쟁에서 어떻게든 수주를 잘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KIND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KIND는 미국의 USIDFC 금융지원이 '로컬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중국 일대일로 돈줄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 개발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KIND 관계자는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 대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진출할 때 USIDFC가 집행하는 대규모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일 경쟁 속에서 틈새시장이 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건설업체도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엔지니어링업체와 시멘트업체 등 유관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변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지 공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향후 건설사들이 유관기관들과 글로벌 자금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재원 활용을 통한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와 협업 모델 도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시멘트家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한국시멘트협회 각 회원사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및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록빛 경영 실천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아름답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협회 각 회원사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SAMPYO Cement 삼표시멘트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및 활성화 캠페인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맛있게 구워진 전이며, 잡채, 송편 등을 빼놓을 수 없다.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송편을 빚으며 모양이 이쁘다, 아니다 하며 그동안 못 다한 얘기를 하며 보내던 것도 즐거운 기억의 한편이다. 지금은 추석 명절 상차림을 대형마트에서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장보기는 우리 어머니들의 손에서 콩나물 한 아름,

버섯 한 아름 더 주어지는 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삼척시 주관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활성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9월 10일 중앙시장에서 열린 행사에 삼표시멘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회사가 준비한 차량을 타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삼척 중앙시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모두 어깨에 행사 띠를 두르고 장보기 캠페인 준비를 마쳤다. 이후 주어진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각자 필요한 물품을 채워 나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각자 무엇을 샀는지 보고, 물어보느라 이야기꽃이 이어졌다.



파란 하늘! 파란 꿈! 어린이 백일장 개최

삼표시멘트는 지난 10월 26일 사내 게스트하우스를 무대로 어린이 백일장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파란 하늘! 파란 꿈! 어린이 백일장'은 삼척시와 함께 성장해온 회사가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글솜씨를 마음껏 자랑하고,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었다.



송중식 전무는 문종구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연필로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오늘날만큼은 핸드폰, 컴퓨터 자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연필과 종이를 통하여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참석한 부모님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기념사를 대신하였다.

어린이 백일장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였다. 시제는 '가을', '우리 가족', '나의 꿈', '지난 여름' 등의 주제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이 글을 쓰는 동안 게스트하우스 한편에서는 퍼즐 맞추기, 레크레이션 행사 등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군밥 및 팝콘 등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내부에서는 자원재활용 홍보, 지난 대회 참가 학생들의 작품집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에서 제공한 점심을 마친 후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이벤트가 실시되었으며, 삼삼오오 모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었다. 이벤트는 짜장면, 짬뽕 두 팀으로 나누어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여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눈을 땔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대상은 정라초등학교 2학년 김현서 어린이가 '우리 가족'을 주제로 무뚝뚝한 아빠와 꼼꼼한 엄마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본인의 이야기와 가족의 일상을 알콩달콩하게 써 내려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참가자들로부터 갈채와 축하를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부모님은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내년에도 꼭 다시 한 번 아이들과 백일장에 참가하고 싶다"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아쉬워하였다.

송중식 본부장은 "이후에도 더욱 알차게 백일장을 준비하여 내년에도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싶은 백일장, 가고 싶은 백일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더욱 백일장 프로그램을 발전되고 알차게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다. 파란 하늘! 파란 꿈! 어린이 백일장은 매년 10월에 개최되며 삼표시멘트가 주관하고 삼척시교육지원청, 삼척문인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S 쌍용양회



쌍용양회 동해공장 노동조합, 동해시청에 장학금 기탁

쌍용양회 동해공장 노동조합원은 지난 9월 6일 직원들의 급여우수리 모은 500만원을 동해시민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몸담고 있는 조합원들이 지역인재 육성과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한다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규언 동해시장과 쌍용양회 동해공장 노동조합 박규원 동해지부장, 권수용 부지부장이 참석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황소봉사회, 농기계 무상 수리 봉사활동 실시

지난 9월 21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황소봉사회가 단양군 가곡면 마을에서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단원들은 연료 필터 교환, 사동 불량 수리 등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황소봉사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농기계수리센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 WITH, 배식봉사

지난 8월 10일 봉사단 WITH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10명의 봉사단원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재료 손질, 배식, 조리실 정리 청돈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은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일현대시멘트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국토 대청결 활동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은 지난 6월 5일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기념식 및 국토 대청결 활동에 참여하였다.

환경선언문 낭독 및 환경 보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 온실가스 저감 대책 발표에 이은 홍보 캠페인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도담삼봉 등 단양군의 대표 관광지 일대를 청소하며 환경에 대해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상생발전 농촌 봉사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 직원들은 지난 6월 25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20여명의 직원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여 매펀삼곡리 소재 지적장애인 농사 재활단체인 ‘그린홈’의 마늘 수확 등 각종 농번기

작업에 힘을 보탰다.

봉사 참가 직원들은 “더불어 살기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돕고 싶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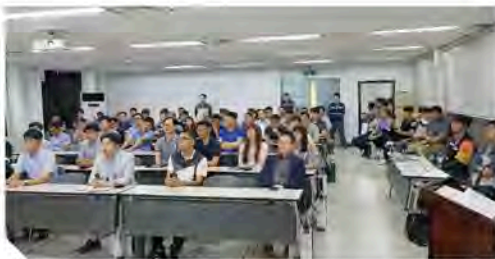


단양공장-가평1리 마을 자매결연 협약식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은 지난 7월 19일 가평1리 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홍서 부공장장과 김승영가평1리 이장을 비롯한 단양공장 직원들 및 가평1리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측은 기업과 마을의 상호발전을 위해 자원봉사 나눔 등 교류와 이해의 장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와 아울러 각종

행사 시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고한 인연을 이어가자는 데에도 동의했다.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은 물론 지역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영월공장 지역상생 노력 눈길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이 1992년 공장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멘트 등 물류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영월지역 홍보에 나섰다.

영월공장은 지난 7월 24일 오전 한반도파출소 안태영 경감을 초청해 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8월 8일부터 열리는 동강땃목축제를 비롯해 봄철 단종문화제와 가을철

난고 김삿갓문화제 등 지역 대표 문화 행사와 참옥수수, 포도, 사과 등 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방문과 구매를 당부했다. 이들은 서부아침시장과 장릉, 청령포 등 문화 유적지도 둘러봤다.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최덕근 공장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공장, 단양 농산물 구매 '앞장'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은 지난 7월 삼태산 으뜸 농산물 출하대회에 따른 어상천 지역 수박을 70여통(100만원 상당) 구매하여 무더운 여름 뜨거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격려하였으며, 추후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행보를 보였다.

단양공장은 매년 공장 인근 농가의 마늘을 구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월공장, 산림정화 캠페인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임직원들은 숲사랑연합회 합동 총 30여명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23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산간계곡 등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산 쓰레기 등 일제수거, 산림정화보호구역 시설물점검 및 보수 등 사후관리,

오물투기 및 수목 굴채행위 등 산림훼손 행위 단속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임직원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세아시멘트



사랑의 헌혈데이 행사 실시

아세아시멘트는 지난 6월 3일 제천공장 구내에서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실천의 일환으로 '사랑의 헌혈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로 전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은 "헌혈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참다운 실천"이라며 "사랑의 헌혈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

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6월 15일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아세아시멘트 단독으로 시행하였다. 20여명의 봉사원들은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가 외부 단열 공사, 벽체 및 출입구 공사, 기름보일러 설치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했던 권오봉 제천공장장은 "어르신들께서 쾌적하고 따뜻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보람된 활동이었다"며 "아세아시멘트는 우리의 이웃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사무소, 요양원 봉사활동

서울사무소 봉사원들은 지난 6월 19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미래요양원' 및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어버이사랑 노인의료복지센터' 두 곳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미래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식사보조와 고장난 냉장고를 폐기물수거장까지 옮겼다. 실내청소 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오붓하게 종이접기 놀이를 하였더니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연신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셨다. 한편 어버이사랑 의료복지센터에서는 실내청소, 식사보조, 나들이를 함께 나갔다. 동행하였던 한 어르신은 "화창한 햇살을 받으며 푸른 나무 밑을 지나가니 기분도 상쾌하다"며 "젊은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제천공장, 무도천 환경정화

제천공장은 지난 6월 23일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일원에서 무도천 변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해 입석리 일대를 돌며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노인요양원 '성락원' 예초작업

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는 7월 23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성락원'을 방문해 진입로 예초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하여 진입로 양쪽에는 무성히 자란 풀과 나뭇가지들로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봉사원들은 예초기를 필두로 풀을 베고, 낮으로는 나뭇가지를 쳐내는 한편 빗자루로는 말끔하게

양옆으로 정리정돈하며 나아갔다. 이날은 연중 가장 더운 대서(大暑)답게 덥고 습한 악조건 속에서도 봉사원들은 묵묵히 땀방울을 흘렸다. 성락원 원장은 "좌우가 확 트이니 사방이 한눈에 들어와 속이 후련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수원공장, 나눔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아세아시멘트 수원공장 직원들은 7월 30일 (사)나눔과실천 산하 '나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화장실, 복도 청소, 주변 환경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수원공장 직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요한네집' 실내청소

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8월 14일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요한네집'을 방문해 실내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세아시멘트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매달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력 봉사, 생필품 및 현금 50만원 등을 후원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는 운영이 어렵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을 선정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요한네집 원장수녀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봉사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육원 '안양의 집' 주차장 정비

서울레미콘공장 직원들은 8월 20일 안양시에 위치한 어린이 보육원 '안양의 집'을 찾아 주차장 주변의 잡초 정리와 바닥 고르기 작업을

실시했다. 보육원장은 "말끔해진 주변과 평평해진 바닥을 보니 맘까지 상쾌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제천시 지역 취약계층에 선풍기 기탁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최근 지역 내 무더위로 고생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8월 20일 선풍기 14대를 송학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였다.

박찬철 총무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년 세 번째 사랑의 집수리봉사

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송학면 도화리에 거주하는 노령의 부부 댁을 찾아 2019년 세 번째,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집은 오래되어 낡았을 뿐만 아니라 벽돌과 흙으로 지어져 사방에서 벽이 갈라지고, 금이 가는 등 붕괴의 위험마저 도사려 집수리가 절실한 상태였다. 이에 봉사원들은 어르신들이 출입문 계단을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2계단으로 되어있던 것을 4계단으로 만들었고, 외벽은 아세아시멘트 일반미장용 모르타르를 사용해 견고하고 단단하게 보강했다. 출입문은 목재로 되어있던 것을 새시로 교체해 주었다.

또한 외부 집주변 정리가 미비하여 우천 시 배수로 역할이 원활치 않아 바닥을 파서 철제를 배수로 양옆으로 막아주고 돌로 독을 쌓았다. 어르신 두 분이 힘에 부쳐 버리지도 치울 수도 없었던 온갖 물건(장농, 옷, 폐자재, 각종 쓰레기)들을 버리니 1톤 트럭으로 2대나 나왔다. 이번 집수리 봉사도 지난 번에 이어 아세아시멘트 단독으로 시행하였다. 봉사원들은 “가을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 값진 땀방울을 흘렸다”며 밝은 미소를 건넸다.



SUNGSHIN 성신양회주식회사



5월 가정의달 맞아 사랑의 사과나눔 실천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지난 5월 30일 매표읍사무소를 방문해 올해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의 사과 50박스(300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매표읍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매년 이어지고 있는 단양공장 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의 이웃사랑 실천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단양공장, 사랑의 헌혈행사 진행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헌혈행사가 지난 6월 3일 단양공장에서 시행되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 중 13명은 헌혈증을 기증하였으며 기증된 헌혈증은 한국소아암협회 또는 지역에 백혈병,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늘 농가와 아름다운 동행

단양의 자랑인 마늘을 수확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과 21일, 단양공장 사우 50여명이 각각 공장 주변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단양공장 사우들은 농가 일손 돕기를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주변 농가로 나가 일손을 보태고 있다.

앞으로도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일손 돕기를 지속해 나가면서 마을과

상생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옥천회, 강원산불 이재민에 공기청정기 47대 지원

6월 3일, 한라시멘트 옥천회에서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옥계지역 이재민 가정에 공기청정기 47대를 지원했다. 옥천회에서 주관한 이번 지원은 강원산불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옥계면 이장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옥천회는 옥계면 출신 임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동호회로 매년 옥계중학교 장학금 지급, 저소득가정 쌀 지원 및 보일러 수리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자체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이번 지원 또한 옥천회 회원들이 틈틈이 모아 온 1,100여만원의 구호자금을 활용해 구매한 것이다. 이날 옥천회를 대표해 옥계면사무소에 모인 10여명의 회원들은 이재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준비된 제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옥천회 회장 공장생산팀 박종만 반장보는 “옥천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더 많은 임직원들이 옥천회와 함께 사랑의 손길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석회석광산 복구지 멸종위기야생식물 식재 행사 개최

6월 4일, 한라시멘트 광산 생태복구지역 일원에서 ‘석회석광산 복구지 멸종위기 야생식물 식재 행사’가 열렸다. 본 행사는 지난 2017년 6월, 생물종 복원 및 생물 다양성 제고를 위해 체결된 ‘석회석 광산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야생식물 제2이식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실시된 행사에는 업무협약의 주체인 한라시멘트·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원주지방환경청에서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에서는 임경태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인공 증식한 날개하늘나리·개병풍·백부자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3종 170여 개체를 식재하면서 생물종 복원 및 생물 다양성 제고라는 취지를 되새겼다.

임경태 대표이사는 “생물종 복원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사업을 통해 식재된 식물들이 더욱 번성해 넓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추구

7월 5일, 한라시멘트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08년부터 실시 중인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4,200여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했다. 구매 제품은 강릉시 옥계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로 감자·옥수수·미역 등 3가지 품목이다.

회사는 예년과 같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전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원하는 품목 한 박스씩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더불어 옥계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주요 고객 및 임직원들의 개인 선물용 농산물 구매도 함께 이뤄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650박스의 농산물을 구매했다. 이를 판매가로 환산하면 4,200여만원으로 지역 농가들에게 있어 적지 않은 규모라 할 수 있다.

대외협력팀 신승근 팀장은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옥계 특산물의 우수성을 다른 지역에도 알리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으나마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행사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라-아세아시멘트, 한국해비타트 현장 자원봉사

7월 11일과 12일, 한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임직원 및 가족 50여명이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현장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는 지난 5월, 한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와 한국해비타트가 함께 체결한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사업 후원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소재 한국해비타트 천안현장에서 진행되었다.

한국해비타트 천안현장에는 올해 3월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가정 및 주거빈곤 가정 12세대를 위한 2층 연립주택 2개 동이 신축되고 있다. 양사 임직원 및 가족들은 2차수로 나뉘어 해당 건물의 외벽용 목조 구조물 등을 제작하는 목공사에 투입, 함께 힘을 보태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집짓기 사업에 사용되는 시멘트 전량 지원 및 임직원 현장 봉사를 포함한 한국해비타트 후원은 한라시멘트가 2001년부터 이어 온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해부터는 모회사인 아세아시멘트와 함께 공동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한국해비타트 측과 물류비 포함, 1억여원 상당의 시멘트 및 드라이몰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동후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옥계공장서 Eco 백두대간 2+ 운동 워크숍 개최

7월 25일, 옥계공장 본관 사무동 회의실에서 ‘Eco 백두대간 2+ 운동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한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Eco 백두대간 2+ 운동’에 대한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라시멘트 및 백두대간보전회 공동 주최로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상반기에 대한 내용으로 Eco 백두대간 2+ 운동 최종복 집행위원장과 한라시멘트 경영지원담당 김영환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무릉계곡 산림정화 캠페인(3월) ▲무릉계곡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풍나무 물주기 행사(5월) ▲무릉계곡 산림정화 캠페인(6월) ▲백두대간 백복령 산림정화 캠페인(6월) 등이 공유되었다.

실적 보고에서는 ▲무릉계곡 및 삼척태백 일원의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백두대간 생태·환경 체험학습 및 백두대간 회원 생태답사 현황 ▲회계 및 사업 집행을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어 하반기 사업 추진 일정 순서를 통해 백두대간 환경 모니터링·체험학습·학술 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 등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옥계면-한라시멘트 장학재단, 옥계지역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

8월 18일, '옥계면-한라시멘트 장학재단'의 지역 우수 학생 57명에 대한 3,000만원의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옥계면-한라시멘트 장학재단은 지난 2003년 한라시멘트에서 출연한 8억원의 기금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매년 강릉시 옥계면 지역주민 자녀들 중 우수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장학금 수혜자는 총 1,161명으로

올해까지 5억6,8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옥계중학교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영환 경영지원담당 상무, 재단법인 옥계면-한라시멘트 장학재단 이용기 공동 이사장과 유제춘 옥계면장 등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같은 날 강릉시 옥계면 장학회가 주최한 5,000만원의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옥계면-한라시멘트 장학재단 이용기 이사장은 “예년과 같이 옥계 지역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후원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사무소 임직원, 하상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 실시

9월 27일, 서울사무소 임직원 6명이 서울시 개포동 소재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서울사무소 안전보건위원회(SOHSC) 주관 하에 전 임직원들이 팀을 이뤄 참여 중인 연간 프로젝트로 올해 들어 3번째로 진행된 봉사이다.

이날 봉사에 나선 기획팀 박찬호 팀장 외 5명의 참가자들은 4시간여 동안 강남구 장애인 수급자 및 복지관 직원들 약 450명 분량의 점심식사를 위해 투입되었다. 이들은 복지관 직원들을 도와 식자재 준비에서부터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이웃 사랑에 작은 힘을 보탰다.

본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전 임직원 36명은 6개 조로 나뉘어 올해 말까지 각 1회씩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하상장애인복지관 이종술 영양사는 “이곳에서는 직원 외에도 장애인 봉사자, 가톨릭 봉사단 및 기타 봉사자 등 1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늘 일손이 부족한 상태”라며 그런 만큼 “한라시멘트 임직원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꿀팁 다섯 가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자료를 통해 카드 할인 조건 선택, 주유할인 카드 사용법, 할부 이자 확인 방법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①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경유차를 이용하는 A씨는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리터를 주유하여 총 5,000원을 할인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유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4,300원만 할인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과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거나 유도하고 있으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누어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할부구매 시 할인 제공 카드는 할부이자를 꼭 확인하라

B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할부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받아 이 카드로 최신형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금에 대해 매월 12,000원의 할인을 받았다. 6개월 후 매월 청구되는 단말기 대금에 5.9%의 할부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위약금이 걱정되어 할부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으므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다. (통신사 약정할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별개)

③ 항공권, 상품권 제공에는 별도의 사용조건이 붙는다

C씨는 '동반자 1인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이용한다. 그런데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항공권도 발권수수료를 부담하는 카드사 자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한편 프리미엄 카드 바우처(voucher)로 매년 호텔식사권을 받아왔던 D씨는 전년도 이용실적이 부족해 올해는 식사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숙박권 등의 바우처(voucher)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비스는 초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므로 제공조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바우처 이용조건도 상품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④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학생 E씨는 해외여행 중 거의 모든 경비를 카드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카드사에 문의해 본 결과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 시 실제 이용금액 이외에 각종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됨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 이용 시에는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0.6~1.4%)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0.3%)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하라

직장인 F씨는 아내와 서로 다른 카드를 이용하며 자신은 주유요금 결제용으로, 아내는 생활비 용도로 이용해 왔으나 부부 모두 전월 이용실적이 부족하여 할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전월 이용실적이 합산되는 가족카드로 변경한 이후 할인혜택을 받게 되었다.

가족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 본인회원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 질 수 있음
·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됨
· 본인회원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됨
· 가족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품도 있음

이렇듯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 다만 가족카드에는 본인카드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여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며, 일부 단점(가족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참조)도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 카드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지혜로운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체크카드 알뜰사용 꿀팁 5가지

-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연말까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②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져요.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 ③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 및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연말정산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 ④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카드 사용 전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 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소식

SAMPYO **삼표시멘트**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설비 준공



삼표시멘트는 지난 9월 24일 삼척시 매립장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문종구 대표이사, 전재섭 삼척시 부시장, 김민철 삼척시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삼척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과 소각에 의한 악취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사안이었다. 특히 시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더 이상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도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의 생활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난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나아가 폐기물 자원순환이라는 공동된 과제를 갖고 2016년 3월 삼척시와 폐기물 자원순환 실현 업무협약을 맺고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 연료화 전처리시설이다.

이번에 준공된 설비는 삼척시가 기존 음식물 처리 시설 건축물로 사용하던 시설물을 개조하고 삼표시멘트가 기계설비 설치에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만들어졌으며, 기부채납을 통하여 본 시설물은 삼척시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 본 설비는 삼척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선별, 파쇄, 가공하여 하루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처리된 가연성 폐자원은 연료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삼척시는 매립에 따른 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처리 시설로 생산된 폐합성수지는 당사에서 처리하게 되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삼표시멘트 문종구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오늘 만들어진 연료화 처리설비가 삼척시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삼표는 본 설비의 운영이 시멘트 제조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연구, 개선하여 삼척시와 회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세계시멘트협회 가입, 문종구 대표 상하이 컨퍼런스 참석



지난 9월 8일 삼표시멘트는 세계시멘트 산업 동향을 파악해 중장기 사업전략을 구상하고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세계시멘트협회(WCA)’에 가입하였다.

세계시멘트협회는 28개국 48개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각 회원사는 수시로 시멘트산업 관련 기술과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세계시멘트협회에 가입한 첫 공식 행보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2019 WCA 컨퍼런스(9.7.-9.11)’에 참가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 질소산화물 저감대책, 대체연료 수급전략 등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문종구 대표이사는 시멘트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올해 하반기 사업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시멘트 운반선을 확보한 만큼 해외시장 수요를 확보하고 공급 다변화 등을 통하여 시멘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산개발팀 김재호 과장 글짓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



국내 광업계 최대 행사인 ‘2019 자원산업 함께 성장 한마당’이 11월 16일 원주 혁신도시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에서 개막했다.

‘광업, 새로운 도약의 100년!’을 슬로건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업협회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광업계 관계자, 지역 학생, 주민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광산 장기근속 근로자와 광업기술혁신업체, 광산 안전 우수업체 포상 및 광산 안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삼표시멘트의 김재호 과장이 광산 안전 글짓기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외 광산 장비업체들이 실제 광산에 사용하는 초대형 광산 장비 시연행사를 하고 광업 세미나, 삼표자원개발 등 11개 광산업체가 참여한 채용박람회, 국내 광산업체 12곳의 신기술을 소개하는 홍보부스 등이 운영됐다. 또한 광산안전박람회와 주민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VR 체험, 실크스크린 제작, 광산 장비 시승, 구조장비 체험 등 스태프 활동, 재난 영화 상영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현무 선임사원, 소방의 날 강원도지사 표창



환경안전팀 이현무 선임사원은 지난 11월 8일 삼척소방서에서 진행된 ‘제57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

상했다. 소방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시상제이다.

환경안전팀 이현무 선임사원은 삼표시멘트 소방안전관리자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9년 삼표시멘트 긴급 구조 종합훈련 진행과 지난 5월 삼척 봉황산 산불진압 긴급 지원 등 삼척시청, 삼척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활동을 하면서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현무 선임사원은 “항상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더욱 열심히 하여 삼표시멘트의 소방안전과 더 나아가 삼척시의 소방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현무 선임사원은 삼척시민의 안전을 위해 삼척시 시민안전 관리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 원용교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쌍용양회 영월공장 원용교 상무와 동해공장 설비보전팀 이현귀 부장이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시멘트협회 창립 제56주년 기념식 및 제46회 시멘트 심포지엄에서 시멘트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한국시멘트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원용교 상무는 국내 시멘트업계 최초로 Pet-Coke의 유연탄 대체율 100%를 실현하고 사용 에너지의 10% 절감 운동과 가연성 순환연료의 사용량 증대 및 다양한 폐기물의 원료 재활용으로 친환경 경영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현귀 부장은 폐열발전설비의 성공적인 건설, 순환자원 사용시설의 설치 및 안정적인 가동을 통한 에너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회사 및 국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크게 기여하여 한국시멘트협회장상을 받았다.

동해공장, 노조간부 하계수련회 실시



시했다.

첫째 날에는 포스코 광양공장을 방문했다. 포스코 역사관에서 포스코의 건립 초기 역경과 발전상 등을 자세하게 들었고, 공장 내부로 이동하여 후판 공정과 공정 개선 현장을 둘러보며 포스코의 현장 운영 노하우를 접할 수 있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노조 간부 및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간부 하계수련회를 실

공장 현장 견학을 마친 후에는 포스코의 QSS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간부들은 동해공장에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공정 개선 방법에 대해 질문을 했고 토론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영월공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특강 개최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지난 6월 18일 현병택 오택캐리어 대표 이사를 초빙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금번 혁신특강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주제로 현병택 대표이사가 금융인에서 국내 대표 에어컨기업의 수장이 되기까지 변화해 온 과정과 명함에 새긴 '대표영업사원'으로서의 마음가짐, 자세 등 인생 선배로서의 진솔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또한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올바른 자세와 습관 등에 대한 조언도 함께 이뤄졌다. 혁신특강이 열린 영월공장 3층 대강당은 영월공장과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용인원을 훌쩍 초과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혁신특강을 접한 한 직원은 "현업에서 활동 중인 대표이사의 조언이라 현실적이고 유익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영월공장, 여름방학 맞아 직원 자녀 대상 비전캠프 실시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지난 7월 24일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꿈을 키우는 비전캠프를 실시했다.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종업원 자녀 대상 비전캠프에는 23명의 임직원 자녀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서울의 명소와 명문대학을 직접 찾아가 둘러보고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맨 처음으로 들른 곳은 국내에서는 가장 높고

세계에서도 5번째로 높은 롯데타워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안개로 서울의 전경에 만족해야만 했다. 이후에는 남산으로 이동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N타워와 남산팔각정도 함께 둘러봤다.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를 방문했다. 학생홍보대사들로부터 연세대의 설립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상에 대해 들은 후 주요 건물과 견학코스를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들은 학생홍보대사들에게 연세대의 다양한 특징과 대학생활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대학에 대한 관심은 물론 보다 넓은 꿈에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월공장, 노사갈등예방 워크숍 실시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지난 8월 27일 동강리조트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노사갈등예방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노사갈등예방 워크숍에서는 상생과 협력의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는 롤 플레이 게임 형식의 '노사, 갈등 관리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주제의 최종택 대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조 간부들이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의 마지막은 지원부문 담당임원인 이병주 전무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상생을 위한 조언을 비롯하여 '갈등'의 원인 및 유형, 해결방안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영월공장, 퇴직자 초청 Home Coming Day 행사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지난 9월 9일 영월·제천지역에 거주하는 퇴직 선배 사우 9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선·후배 쌍용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Home Coming Day' 행사를 실시했다. 금번 행사는 전·현직 쌍용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선배 사우들은 앞으로 '백년을 넘어 발전해 나가는 쌍용양회 영월공장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백일홍 기념식수 행사를 공장 구내 잔디밭에서 진행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당초 계획했던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행사에 참석한 퇴직 선배사우들은 "퇴직 후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즐거웠고, 쌍용양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며 한 때 몸담았던 쌍용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일시멘트

2019 KS-QEI 시멘트 10년 연속, 레미탈 11년 연속 1위 선정



한일시멘트가 지난 10월 2일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2019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상식'에서 포틀랜드시멘트 부

문과 드라이모르타르 부문에서 각각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한일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일시멘트는 2004년 업계 최초로 ISO 9001을 전 사업장이 취득해 전사적 품질시스템을 통해 '환경과 품질'을 일찌감치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시멘트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최고의 건축마감재로 자리매김한 레미탈은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한일시멘트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인천, 부천), 강원권(여주), 충청권(공주), 영남권(가야, 함안), 호남/제주권(목포) 등 전국적인 생산거점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KS 기준인 압축강도 21Mpa 이상을 확보하면서 펌핑 타설에 용이하게 작업성을 개선시킨 층간소음 절감에 용이한 고강도 바닥용 모르타르 FS150과 기존 타일시멘트 대비 약80%의 분진을 저감할 수 있는

타일접착용 모르타르 폴리픽스 1000과 폴리픽스 2000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한편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소비자와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종합지표다. 한일시멘트는 사용품질차원(성능, 신뢰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접근성)과 감성품질차원(이미지, 인자성, 신규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근식 대표이사 취임



한일시멘트는 지난 7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전근식 한일홀딩스 대표를 한일시멘트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전 대표는 1991년 한일시멘트에 입사하여 단양공장 부공장장과 본사 경영기획실장, 경영본부장, 한일네트웍스 대표이사, 한일현대시멘트 부사장을 역임하였고 2018년부터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진정한 시멘트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도전정신과 입체적 사고와 전략,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중요하다"며 모든 부문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때로는 선봉자로서 바람막이가 되어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후원자로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역량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진정한 1등 기업이라는 아름다운 도전의 길에 임직원들이 함께하기를 독려하면서 대표이사로 첫발을 내딛는 각오를 내비쳤다.

2019년 모범사원 해외산업 연수



2019년 모범사원 13명이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으로 해외산업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방문해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매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해외 산업현장 시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택공장, 무재해 3배수 1,248일 달성



평택공장이 6월 17일 무재해 3배수 1,248일을 달성했다. 이는 2016년 1월 16일부터 약 3년 4개월간 이뤄낸 기록으로 평택

공장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안전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관심과 실천을 겸비한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다.

평택공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환경개선 활동인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 활동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평택공장 임직원들은 무재해 4배수 목표 달성을 위해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 시 할 수 있는 제안과 개선활동을 적극 시행하여 무재해 공장 지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은상 수상



단양공장 생산팀 '소백산' 분임조가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자유형식 부문에 참가한 소백산 분임조는 '시멘트 완제품 공정 개선으로 정지 시간 감소'를 주제로 발표한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9,200개 기업, 5만5,000여개 품질분임조 중 시·도 지역예선을 통해 최종 선발된 298개 품질분임조가

참가해 각 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실적에 대한 성과 보고와 품질관리 노하우 등을 공개했다.

한일현대시멘트

장오봉 대표이사 취임



한일현대시멘트는 지난 7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장오봉 한일시멘트 부사장을 한일현대시멘트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장 대표는 1985년 한일시멘트에 입사하여 단양공장 관리부장, 중부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원 승진 후에는 영등포공장장을 비롯하여 시멘트 레미콘, 레미탈 등 줄곧 영업부문에서 성과를 보이며 2016년부터 한일시멘트 영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해왔다. 장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한일현대시멘트를 더 좋은 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힘을 쏟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식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은 지난 7월 31일 단양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을 비롯한 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미세먼지 발생량 줄이기 공동노력, 저감방안 마련 등 비상저감 조치 수단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 건강보호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감축에 누구보다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재해 안전기원 노사단합 등반대회



6월의 맑은 주말, 한일현대시멘트 노사단합 등반대회가 제천 청풍호 일대에서 시행됐다.

청 풍 자 드 락 길 얼음골생태길 약 5.6km를 걷는 코스로 짜인 이번 행사에는 영월공장 및 단양공장 임직원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해 보드득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트래킹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뒤풀이를 통해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남은 한 해에 대한 무재해 안전을 기원했다.

한일현대시멘트 55주년 시업기념일



한일현대시멘트가 55주년 시업기념일을 맞이하여 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진행하여 그 노고를 치

했다. 금번 수상자는 우수사원 3명, 장기근속자 75명(30년 근속 12명, 25년 근속 48명, 20년 근속 1명, 15년 근속 12명, 10년 근속 2명)이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신봉근 과장, 제천시장 표창 수상



제천공장 환경안전팀 신봉근 과장이 6월 5일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제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신

봉근 과장은 제천시 관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환경 보전 유공 표창 이후 아세아시멘트 직원들은 의림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천공장 최종철 차장, 충청북도지사 표창 수상



지난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실시된 '2019년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제천공장 공정연구파트장 최종철 차

장이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최종철 차장은 품질경영 실천 및 확산에 헌신한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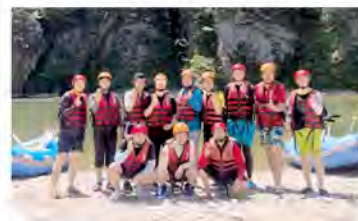


지난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 '2019년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제천공장 생산파트 거북이분임조(현장

개선, 중견)와 자원개발팀 다래산분임조(사무간접, 중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8월 말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세아·한라 전산팀, 통합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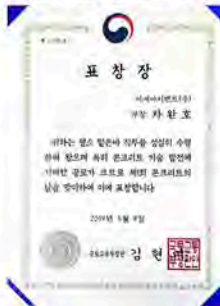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영월에서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전산팀의 통합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 사 간 시너지 및 소통 강화 차원으로 2019년 상반기 활동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IT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보안'을 주제로 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족구, 탁구, 동강 래프팅 등 체육활동도 함께 했다. 이찬우 아세아 전산팀장은 "워크숍을 통해 IT 기술 노하우 및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사 간 우호증진을 꾀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제천공장 차완호 부장,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제천공장 기술연구소 차완호 부장이 지난 6월 24일 '콘크리트 날'을 맞이하여 콘크리트 기술유공자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콘크리트 날은 콘크리트 관련 기술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콘크리트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차완호 부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콘크리트 산업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아세아시멘트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45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제천공장 자원개발팀이 금상을, 생산

팀은 은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아세아시멘트는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금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사무 간접부문에 출전한 자원개발팀 '다라산 분임조'는 '광산 채광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채광원 단위 절감'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금상을 받았다. 현장개선 부문에는 생산팀 '거북이분임조'가 출전해 '소성 4호 냉각공정 개선으로 폐열발전 손실시간 감소'를 주제로 발표해 은상을 획득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는 매년 전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전사기술세미나 발표, 종합생산관리(TPM)·나의제안·분임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품질경영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천공장 김형수 차장, 충청북도지사 표창 수상



지난 9월 30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 44주년 민방위대 창설 행사'에서 아세아시멘트 환경안전팀 김형수 차장이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본 상은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민방위 활동에 적극 참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상하는 뜻 깊은 상이다.

SUNGSHIN 성신양회주식회사

단양공장 하규섭 상무,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시멘트협회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충북 단양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국내 9개 시멘트업계 임직원과 학계 관계

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협회 창립 56주년 기념식과 시멘트 심포지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단양공장 하규섭 상무가 시멘트 산업 발전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상반기 임원전략회의 개최



성신양회의 중장기 계획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2019년 상반기 임원전략회의가 7월 12부터 13일까지 엘리시안 강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경영계획을 점검·수정하는 한편 향후 투자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태현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다”며 “장기적으로 미래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회사를 발전시키자”고 당부하였다.



2019년 안전리더십 교육 및 간담회 실시



4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현장 기술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리더십 교육 및 간담회가 15차수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리더십 교육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요 사항 공유로 안전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실장과 본부장과의 간담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기술직 직원 260여명을 대상으로 사내강사의 강의로 실시되며, 공무실·생산실·기술실·안전보건환경실 등 소속별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보다 활발한 소통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실장·본부장과의 간담회가 각 30분씩 마련되었으며, 교육 및 간담회 후 생산본부장과 함께 저녁식사 시간도 이어졌다.

2019 안전보건의 달 행사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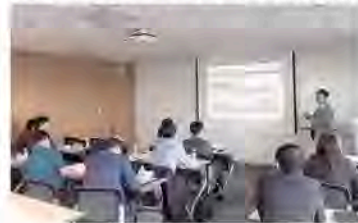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라시멘트 전 사업장에서 ‘2019 안전보건의 달’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캠페인을 통한 안전행동의 실천 촉진 및 안전문화의 성숙도 향상 그리고 무재해

비전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6월 약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전사적 안전 캠페인이다.

올해에는 ‘무재해 달성, 기본에 충실해요!’라는 주제 하에 ‘원칙준수·안전행동·모두참여’ 등 세 가지 실천 과제가 주어졌다. 올해는 특히 각 공장 및 유통기지 등 행사가 실시되는 현장의 특색에 맞춰 편안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옥계공장: 클린 Area 인증행사·비상대응 콘테스트·안전 경진대회·위험개선 우수사례 발표 등 ▲항만공장: 클린 Area 인증행사·수송차량 안전 캠페인 등 ▲광양·포항·인천공장 및 각 유통기지: 교통안전 캠페인·비상대응 훈련 등 ▲서울사무소: 재난 체험 교육 등이 현장별로 실시되었다.

생물 다양성 전략 세미나서 멸종위기종 복원 사례 발표



6월 12일,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주관한 ‘기업의 생물 다양성 전략 세미나’에서 한라시멘트가 ‘광산 생태복원 및

멸종위기종 복원 사례’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 행사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의 필요성 제고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환경부·한국시멘트협회·지속가능기업협의회·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역삼동 G타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행사 주관사 담당자들과 더불어 시멘트업계 환경·자원(광산)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등을 포함해 1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한라시멘트에서는 실무 담당자인 대외협력팀 김학성 부장이 ‘옥계 석회석 광산 생태복원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전략 등을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에는 ▲광산 생태복원 및 시험시공 ▲생물 종 다양성을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공익환경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당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두루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라시멘트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안영수 팀장,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6월 18일, 구매수출팀 안영수 팀장이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시멘트협회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업계 발전 유공

자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안영수 팀장은 지난 1990년 구매팀으로 입사해 IE팀(자원재활용팀), 수출팀, 마케팅팀 등을 거친 후 현재 구매수출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시멘트통상부문 추천자로서 지난 29년간 수출입 관련 업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 팀장은 "광산부터 항만까지 원활한 수출 선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준 사람들, 까다로운 해외 고객들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시켜 온 공정·생산·품질 관련 엔지니어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함께해 온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옥계공장,

일반질병 유소견자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6월 25일, 옥계공장 생산본부 3층 교육장에서 '건강검진 일반질병 유소견자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1회차가 진행되었

다. 본 프로그램은 월 1회씩 총 6회에 걸쳐 강릉시 보건소와 연계한 방문 진료 및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지게 된다.

옥계공장 근로자 중 2018년도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일반질병(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유소견자 100여명이 대상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건강행태 분석 ▲체성분 측정 ▲영양 및 스트레스 ▲대사증후군 ▲비만 ▲절주 ▲금연 등에 대한 부분이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사내에서 운영 중인 건강관리실과 지역 전문기관을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율적 참여가 아닌 유소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예년 프로그램에 비해 진일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안전관리팀 김한수 팀장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며 "이로써 회사의 인적자원 보전 및 재해율·작업손실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군1함대 대상 방문 안전체험 교육 실시



7월 17일, 옥계공장 본관 1층 안전교육장에서 해군1함대의 방문 안전체험 교육이 실시되었다. 해군1함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교육에는 해군1함대 소속 신입군무원 및 안전관계자 40여명이 참가했다.

안전교육장에서 내부 강사의 강의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에너지차단 ▲고소작업 ▲소방안전 ▲공기구 및 화기작업 등을 주제로 2시간 가량 실습 위주로 실시되었다.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은 당사 안전체험 시설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풍부한 전문지식으로 열의를 다해 강의해 준 강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에너지차단 교육에 대해서는 "LOTOTO 절차를 벤치마킹해 해군1함대에 도입하면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기를 남겼다.

아세아제지 안전관계자 대상 안전관리 시스템 교육



7월 18일 아세아제지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한라의 우수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아세아제지 측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아세아제지 안전관계자 3인이 옥계공장을 방문해 이뤄졌다.

안전관리팀이 주관한 교육에서는 ▲정문 출입 시 보안 절차 ▲한라시멘트 안전교육 대상 및 진행 방법 ▲Safety KPI 및 사고 관리 방안 ▲안전보건의달 행사 소개 ▲안전체험교육장 소개 등의 주제로 강의 및 체험 형식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을 마친 이들은 각종 교육 자료와 안전체험교육장 등 오랜 기간 한라시멘트가 발전시켜 온 안전관리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접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아세아제지의 안전문화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ISO 9001·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한라시멘트의 ISO 9001·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외부 심사가 이뤄졌으며, 심사 결과 ISO

인증이 유지되었다. 본 외부 심사는 회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및 국제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준법지원팀 주관 하에 내부 심사원을 통한 유관부서 내부심사가 사전에 실시되었다. 심사가 이뤄진 항목은 ▲품질 프로세스·환경 프로세스 ▲사규문서 관리 ▲포항공장 품질/환경 ▲광양공장 품질/환경 등이다.

이후 7월 30일부터 31일 양 일간 옥계공장을 비롯한 분공장 등에서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외부 심사가 진행된 바 있다. 모든 인증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최종 평가를 받았고, 몇 가지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별로 액션플랜 수립 후 개선이 진행되게 된다.

김학성 부장, 산불진화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 수상

동해안지역 산불진화유공 정부포상 수여



8월 5일, 대외협력팀 김학성 부장이 산림청 주관 '강원 동해안 지역 및 인제 산불진화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

상했다. 올해 4월 초 발생했던 동해안 산불 당시 인명피해 최소화와 산불 확산 방지 및 진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학성 부장은 이번 산불 진화에 있어 ▲신속한 상황파악 및 사택 인접 가구 주민 대피 ▲진화장비·진화대원 활동 공간 제공 및 급수 지원 ▲주불 진화 후 자체 감시를 통한 상황실 보고 등의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옥계 대형산불 진화 및 2014년부터 진행해 온 '규제개혁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및 규제개선 발굴'에 대한 공로도 함께 반영되었다.

김학성 부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대표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적극 협조해 준 옥계공장 임직원들 및 지역 주민들과 영예를 나누고 싶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안전교육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정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8월 23일, 옥계공장 내 안전교육센터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지정하는 공식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최종 인정됨에 따라

9월 5일 인정서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09년 개설된 테마별 체험형 안전교육시설인 안전교육센터에서는 매년 전문 사내 강사를 통한 임직원 대상의 정기 안전교육 및 외부 인원 대상의 방문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교육센터가 '체험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 3번째 지정이자 민간부분으로는 2번째 지정으로서 향후 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산업재해 등의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 시간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 수여식은 9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본관사무실 및 안전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이사 이하 생산본부 실장·팀장을 비롯한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치문 교육문화이사, 김도근 강원동부지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임경태 한라시멘트 대표이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당사 안전교육센터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지역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의 전파 뿐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안전한국 만들기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공인된 기관으로써 인정을 더욱 더 단단하게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45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동상 수상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45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항만생산팀 오대양분임조가 동상을 수상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본 대회는 전국 250여개 분임조들의 품질 개선 우수사례를 모아 자웅을 겨루는 행사이다. 올해는 각 분임조 및 가족·동료를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위원장, 경상남도지사, 거제시장, 한국표준협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오대양분임조는 강원도 중견기업 자유형식 부문 대상으로 지역 예선을 거쳐 참가했으며, ‘어울림/VFL 활동 하역공정 개선으로 CCP지수 감소’라는 주제로 동상을 수상했다. 한라시멘트의 경진대회 참가는 지난 1996년 이후 20여년 만으로 지역 예선 대상 수상 및 전국대회 참가의 의미는 전사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대양분임조 조장인 항만생산팀 양희철 반장은 “전국대회에서 동상 수상에 그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각 조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그간 갈고 닦아 온 기술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대외 경진대회에도 적극 참여해 분임조 활동의 효과를 높여 갈 계획이다”라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2019년 관리직 전사 팀빌딩 개최



9월 19일부터 20일,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에서 ‘2019년 관리직 전사 팀빌딩’이 개최되었다. 한라시멘트 관리직 전 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격년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하나된 우리, 하나된 꿈 Go Halla-Asia!’라는 슬로건 아래 아세아의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성공과 화합을 염원하며 관리직 임직원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치러졌다.

임경태 생산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함께 나아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같은 식구라도 평소 보기 어려웠던 만큼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소통과 더불어 팀워크를 높이길 바란다”는 말로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KBS 다큐멘터리 3일〉 오대양분임조 취재분 방영



9월 20일, 〈KBS 다큐멘터리 3일〉에 항만생산팀 오대양분임조원들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

의 삶을 72시간 동안 취재해 보여주는 현장 다큐멘터리로 이번 화에서는 지난 8월 26일,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한 296팀 중 오대양분임조를 포함한 몇몇 팀의 발표 모습과 일선 현장 내 일상을 담았다.

MEMBERSHIP NEWS

방송에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연대회에서 발표를 맡았던 김윤기 사원과 전수환 사원을 중심으로 분임조원들의 발표 장면과 항만공장 내 작업 모습 등이 주로 그려졌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LOTOTO를 통해 작업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보여졌다.

본 방송은 9월 20일 10시 50분, KBS1 TV에서 <맘의 이유 - 대한민국 산업현장 72시간>이라는 부제로 방영되었고 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창립 41주년 2019년 장기근속자 시상식 개최



9월 30일, 옥계공장 에서 한라시멘트 창립 41주년을 맞아 '2019년 장기근속자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행사는 생산본부

식당에서 이훈범 사장 이하 각 본부 본부장 및 각 부서 팀장, 박천복 노조 위원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20분간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기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 96명이 근속 기간에 따른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수상자는 ▲5년 근속: 항만생산팀 김윤기 외 32명 ▲10년 근속: 전기팀 이태우 외 8명 ▲15년 근속: 공장생산팀 김사유 외 1명 ▲20년 근속: 자원개발팀 권순성 외 2명 ▲25년 근속: 전기팀 김정기 외 35명 ▲30년 근속: 항만생산팀 양희철 외 12명 등 총 96명이다.

시상 이후 축하 및 축하 케이크 절단, 장기근속자 소감 발표가 있었고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 이훈범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남다른 성실함과 애사심으로 임해 준 장기근속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협조를 통해 지속 가능하며 영속적인 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인사동정

성신양회(주)

구분	발령일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복직	2019.07.01.	김설규		재무관리본부 재무기획팀 차장	

한라시멘트(주)

구분	발령일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2019.06.01.	김선진	생산본부 생산실 공장생산팀장 겸 생산실장 대행/부장	생산본부 생산실 생산실장 대행/부장	
	2019.06.01.	윤종빈	생산본부 기술실 기술혁신팀장/부장	생산본부 생산실 공장생산팀장/부장	
	2019.06.01.	구상서	생산본부 기술실 기술혁신팀/차장	생산본부 기술실 기술혁신팀장/차장	



STATISTICS

- 시멘트 수급총괄 74
- 클링커 수급총괄 75
- 시멘트 수송실적 76

시멘트 수급총괄

Cement Statistics, Actual

(단위:톤)

(Unit: M/T)

연도	생산	출하	내수		수출	수입	계고
			내수	수출			
1995	57,260,245	60,796,546	60,012,801	783,745	3,605,455	817,300	
1996	58,796,075	62,374,859	61,752,135	622,724	2,989,257	1,223,164	
1997	46,091,066	45,854,497	44,615,093	1,239,404	177,719	1,630,349	
1998	48,156,548	48,382,348	44,721,156	3,661,192	135,474	1,468,709	
1999	51,255,129	51,945,554	48,000,094	3,945,460	517,889	1,296,693	
2000	52,046,329	53,055,826	50,054,852	3,000,974	988,514	1,274,521	
2001	55,513,831	56,779,522	54,291,800	2,487,722	1,189,119	1,137,333	
2002	59,193,796	60,914,062	58,302,257	2,611,805	1,808,936	1,226,436	
2003	54,329,760	57,582,977	54,942,318	2,640,659	3,398,228	1,363,971	
2004	47,197,201	50,309,917	46,285,524	4,024,393	3,402,978	1,487,465	
2005	49,198,785	52,372,958	48,386,021	3,986,937	3,198,322	1,518,522	
2006	52,182,351	54,923,979	50,800,755	4,123,224	2,917,093	1,448,306	
2007	51,653,418	53,642,874	50,636,800	3,006,074	1,985,460	1,447,279	
2008	50,126,341	50,957,374	48,469,983	2,487,391	831,324	1,421,228	
2009	47,420,060	48,255,187	45,493,332	2,761,855	772,487	1,362,008	
2010	48,249,153	49,085,043	44,601,372	4,483,671	683,400	1,267,687	
2011	46,862,240	47,088,926	43,938,835	3,150,091	728,378	1,865,915	
2012	47,290,598	48,726,134	45,173,814	3,552,320	760,519	1,041,046	
2013	47,047,900	47,630,304	43,706,915	3,923,389	881,681	1,357,236	
2014	52,043,695	53,639,091	50,737,202	2,901,889	1,157,505	798,180	
2015	56,507,193	57,534,266	55,755,560	1,778,706	1,150,870	1,007,530	
2016	57,399,835	57,848,354	56,710,577	1,137,777	854,363	1,440,160	
2017	52,092,607	52,393,362	51,236,889	1,156,473	662,000	1,229,041	
2018. 1	3,255,145	3,185,158	3,089,452	95,706	54,900	1,388,507	
2	3,018,755	2,997,042	2,928,894	68,148	50,400	1,426,250	
3	4,472,374	4,760,327	4,692,707	67,620	62,400	1,172,972	
4	4,967,847	4,874,454	4,773,834	100,620	48,400	1,279,140	
5	4,933,266	5,048,981	4,979,316	69,665	72,400	1,188,162	
6	5,044,484	5,081,459	4,958,900	122,559	72,400	1,194,445	
7	4,389,937	4,267,741	4,159,028	108,713	42,800	1,315,924	
8	3,858,464	3,693,566	3,569,596	123,970	57,200	1,503,419	
9	4,058,773	3,982,135	3,915,785	66,350	57,200	1,586,192	
10	4,578,865	5,017,016	4,908,420	108,596	58,000	1,162,311	
11	5,024,475	5,272,639	5,198,999	73,640	53,000	937,137	
12	4,490,222	4,212,844	4,061,958	150,886	33,000	1,229,041	

클링커 수급총괄

Clinker Statistics, Actual

(단위: 톤)

(Unit: M/T)

연도	생산	분세	출하	수출		수입	계 고
				내수	수 출		
1995	52,271,711	50,747,568	1,549,815	581,439	1,549,815	92,629	836,363
1996	54,123,870	52,653,935	562,375	585,454	562,375	-	1,733,750
1997	42,243,043	41,069,858	1,584,357	415,837	1,584,357	4,543	1,306,692
1998	43,789,392	42,622,407	1,336,872	526,336	1,336,872	479,926	1,323,682
1999	45,718,729	45,165,115	940,319	791,832	940,319	161,644	1,098,621
2000	47,393,315	45,954,372	1,644,982	954,877	1,644,982	95,857	997,095
2001	50,048,106	44,873,142	905,520	961,934	905,520	3,074	1,389,970
2002	51,574,781	51,574,781	534,701	1,026,198	534,701	69,911	1,142,592
2003	48,251,140	48,251,140	1,420,009	1,162,489	1,420,009	21,750	1,323,676
2004	43,070,969	40,249,698	2,324,147	782,611	1,945,379		2,031,236
2005	42,723,260	41,568,354	2,212,234	656,024	2,210,070		1,239,211
2006	46,293,240	43,983,878	2,221,671	680,942	2,218,492		1,326,902
2007	46,794,815	43,044,487	3,498,120	736,949	3,494,323		1,607,113
2008	44,774,389	42,560,330	2,093,244	709,177	2,085,021		1,779,715
2009	44,853,095	40,161,790	4,768,811	509,770	4,761,909		1,700,865
2010	45,280,804	39,998,746	5,534,427	667,733	5,481,169	2,360	1,504,810
2011	45,154,987	38,728,735	5,735,351	844,116	5,733,180	1,920	2,064,439
2012	44,382,267	39,344,922	6,364,318	867,984	5,496,334	37,365	1,551,157
2013	44,815,936	38,878,711	6,328,887	727,014	5,601,873	15,177	1,773,901
2014	47,015,261	42,865,039	5,425,298	978,713	4,446,585		1,374,106
2015	49,147,686	45,943,033	4,007,071	743,172	3,263,899	62,616	1,436,910
2016	46,657,426	46,133,944	3,117,105	866,029	2,251,076	36,601	1,759,369
2017	45,350,992	41,730,801	4,948,052	660,852	4,287,200		1,304,453
2018. 1	2,878,520	2,614,913	255,244	43,014	212,230		2,022,840
2	3,039,464	2,428,610	255,829	43,119	212,710		2,420,983
3	3,761,479	3,583,797	296,366	59,936	236,430		2,362,236
4	3,907,334	3,957,043	242,940	61,840	181,100		2,131,426
5	4,069,886	3,934,247	245,557	63,522	182,035		2,085,029
6	3,990,872	4,044,935	431,630	61,596	370,034		1,660,932
7	4,002,401	3,498,339	444,973	58,217	386,756		1,778,238
8	3,647,697	3,108,441	494,407	45,585	448,822		1,868,672
9	3,663,044	3,248,971	497,924	47,617	450,307		1,832,439
10	4,265,148	3,672,378	584,330	58,108	526,222		1,898,987
11	4,126,372	4,028,942	610,650	67,746	542,904		1,453,513
12	3,998,775	3,610,185	588,202	50,552	537,650		1,304,453

• 클링커 내수는 타사 판매분

시멘트 수송실적

Cement Transportation, Actual

(단위:톤)

(Unit: M/T)

연도	철도편 By Rail			자동차편 By Truck	선박편 By Vessel	계 Total
	수량 Quantities	화차수(량) Number of Freight Car	일평균(량) Daily Averages			
1995	18,475,785	360,296	987	21,321,752	19,361,846	59,159,383
1996	18,002,996	360,060	986	22,373,596	19,069,110	59,445,702
1997	19,323,209	386,464	1,059	22,143,871	19,398,335	60,865,415
1998	15,485,119	309,702	848	14,654,589	17,473,129	47,612,837
1999	15,636,682	312,734	857	15,233,418	19,189,484	50,059,584
2000	16,518,830	330,377	905	17,066,945	20,235,029	53,820,804
2001	17,353,549	347,071	951	17,873,861	21,097,535	56,324,945
2002	18,397,966	367,959	1,008	19,605,097	20,392,703	58,395,766
2003	19,093,658	381,873	1,046	20,515,393	20,488,452	60,097,503
2004	17,465,148	349,303	957	19,574,746	19,593,122	56,633,016
2005	14,741,045	294,821	808	15,361,252	18,873,458	48,975,755
2006	15,182,481	303,650	832	15,493,668	20,361,298	51,037,447
2007	16,048,415	320,968	879	17,289,426	20,968,064	54,305,905
2008	17,160,451	343,209	940	15,699,321	21,366,228	54,226,000
2009	15,806,714	316,134	866	14,615,778	20,587,617	51,010,109
2010	14,596,126	291,923	800	14,240,370	21,765,464	50,601,960
2011	14,486,998	289,740	794	13,808,801	23,595,835	51,891,634
2012	14,409,414	288,188	790	13,672,098	22,281,744	50,363,256
2013	14,753,740	295,075	808	14,534,295	21,726,434	51,014,469
2014	14,038,726	280,775	769	14,788,093	22,268,432	51,095,251
2015	14,747,020	294,940	808	18,967,389	21,344,370	55,058,779
2016	13,473,708	269,474	738	23,158,647	20,964,332	57,596,687
2017	13,237,901	264,758	725	22,564,494	21,909,757	57,712,152
2018	12,346,232	246,925	677	21,757,739	20,704,781	54,808,752
2018. 1	770,990	15,420	514	1,226,642	1,366,760	3,364,392
2	658,547	13,171	439	1,151,171	1,307,186	3,116,904
3	1,122,521	22,450	748	1,879,710	1,693,339	4,695,570
4	1,200,014	24,000	800	2,051,087	1,701,768	4,952,869
5	1,181,128	23,623	787	2,235,074	1,593,977	5,010,179
6	1,195,138	23,903	797	2,233,707	1,837,868	5,266,713
7	1,088,204	21,764	725	1,824,675	1,679,798	4,582,677
8	869,614	17,392	580	1,511,749	1,755,354	4,136,717
9	882,729	17,655	588	1,666,990	1,675,924	4,225,643
10	1,163,502	23,270	776	2,085,008	1,912,099	5,160,609
11	1,175,132	23,503	783	2,202,287	2,143,345	5,520,764
12	1,038,713	20,774	692	1,689,639	2,037,363	4,765,715

아세요?

모두의 환호성 속에 **아세아**가 있습니다

당신의 즐거움, 공간, 미소...

당신의 행복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 계열사인
경주 월드의 세계 3번째
대한민국 최초,
수직 다이브코스터
"드라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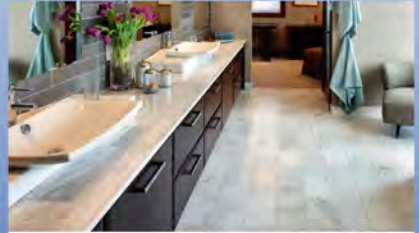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건축테크놀로지
보이는
행복테크놀로지



건축물에 아름다움을 입히는 마감재에서
 산업의 기초가 되는 알루미늄시멘트까지
 유니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객의 행
 복과 함께합니다.



백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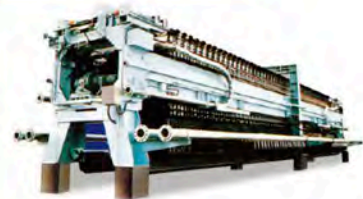
건축자재 타일시멘트, 타일본드, 유니셀



토목자재 초속경, 그라우트, 급결제, 강섬유



내화재료 알루미늄시멘트, 용융알루미나



환경사업 탈수기, 여과기, 오존시스템